



Autumn. 2015. Vol.16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sic

음악 대학 소식



서울대학교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sic
Autumn, 2015. Vol. 16

04

음악대학 주요행사

거장을 만나다_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트벤 시리즈>
 열정으로 빛어낸 뜨거운 무대_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열정과 노력의 결실_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현의 울림과 함께하는 감동의 무대_ SNU 스트링 앙상블 연주회
 관악(管樂)의 소리, 관악(冠岳)에 울려 퍼지다_ SNU 윈드 앙상블 정오음악회
 다양한 시도로의 발돋움_ SNU 심포닉 밴드 정기연주회
 봄날에 울려 퍼진 전통 국악의 향연_ 국악과 봄 정기연주회
 설레는 첫 발걸음_ 국악과 신입생 연주회

15

리뷰 & 리포트

화합과 성장, MOU 체결_ 인디아나 대학교 MOU 체결
 예술계 복합연구동 개관행사
 I. 기쁨과 감동의 무대, 그 위대한 시작을 알린다_ 예술복합연구동 준공기념 음악회 <나비의 꿈>
 II. 예술교육연구에 대한 새로운 활력의 기운_ 예술복합연구동 준공기념 국제학술대회 <창의시대와 예술교육의 새로운 비전>
 Art Space@SNU_ 2015 서울대학교 예술주간
 서울대 가족과 관악주인을 위한_ 화요음악회



21

사회와 함께하는 음악대학

나눔과 감동의 작은 음악회
 - 제 8회 헌자와 가족을 위한 서울음대 병원음악회

22

인터뷰

책임감으로 내딛은 교육자의 걸음_ 작곡과 서정은 신입교수
 열정의 탐험가, 음악적 여정의 길잡이
 _ 피아노과 Ian Richard Hobson 신입교수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_ 국악과 김경아 신입교수
 꿈을 좇는 그들_ 학생 연주팀/레브 스트링 파르텟
 유쾌한 색소폰 파르텟을 만나다_ 학생 연주팀/S with 파르텟

30

강의실을 찾아서

음악을 생각하다_ 현대음악어법/이신우 교수

32

콘서트를 찾아서

다방면의, 그리고 새로운_ 이경선 교수

35

연구프로젝트 탐방

한국을 듣다
 _ 음악대학 서양음악연구소 토대연구 심포지움

36

에세이

다성음악에 대한 단상
 _ 에세이/작곡과 최우정 교수
 책 읽는 음악가_ The Giver(Lois Lowry)/정다은

40

졸업생을 찾아서

뉴잉글랜드에 울려 퍼진 '평화 콘서트'
 - New England 지부 동창회장/장수인
 '음악하는 뇌'를 들여다보다
 _ 융합과학기술대학원 BK조교수/이경면

42

축하합니다

콩쿠르 입상자
 감사합니다
 발전기금 출연자 명단

46

학과 및 연구소 소식

교수 동전
 학과 및 연구소 소식
 과별 엠티 소개

04

SNU Main Event

SNU Symphony Orchestra's (Beethoven Series)

A Stage born with Passion_ SNU Philharmonic Orchestra's Regular Concert

Fruit of Passion and Diligence_ SNU Philharmonic Orchestra's Regular Concert

Impressive stage joined with Resonance of String_ SNU String Ensemble Concert

Brass Sound(Kwan-ak) Resounding through Gwan-ak_ Noon Concert of SNU Wind Ensemble

Leaping forward to Various Attempts_ SNU Symphonic Band's Regular Concert

Feast of Traditional Music sounding on a Spring day_ Spring Concer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First Step full of Thrill_ Freshmen Recital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15

Review & Report

Harmony and Growth, signi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auguration Ceremony of Art Research Complex

I. Stage of Joy and Impression, Heraldng a Great Beginning

_ Commemoration Concert of the Completion of Art Research Complex Construction (A Dream of Butterfly)

II. New Energy of Vitality for Art Education Research

_ Commemoration Conference of the Completion of Art Research Complex Construction (Era of Creativity and New Vision for Art Education)

Art Space@SNU_ 2015 SNU Art Week

For SNU family and Gwan-ak Residents_ Tuesday Concert Series



21

College of Music with Community

Heart-warming recital of share and touch

_ The 8th SNU College of Music Hospital Concert for Patients and Families

22

Interview

Step as an Educator taken with Responsibility

_ Prof. Jeong-Eun Seo of the Department of Music Composition

Passionate Explorer and Guide of Musical Journey

_ Prof. Ian Hobson of the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Passion that never fades!

_ Prof. Kyung-A Kim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Dream Seekers_ Student Ensemble/REVE String Quartet

Meeting a jolly Saxophone Quartet_ Student Ensemble/S with Quartet

30

Visiting Classroom

Thinking Music

_ Modern Music Language Prof. Shinuh Lee

32

Visiting Concert

Versatile, and New_ Prof. Kyung-sun Lee

35

Research Project

Listening to Korea

_ Basic Research Symposium of Western Music

Research Institute of SNU College of Music

36

Essay

An Essay on Polyphonic Music

_ Prof. Uzong Choe, Department of Music Composition

Reading Musician

_ The Giver by Lois Lowry

40

Alumni News

"The Peace Concert", New England is filled with the beautiful sounds.

_ Chang Soo - Ihn, the president of an alumni association of a branch of New England

Peeking into the 'Musicking Brain'

_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BK Assistant Professor Kyung-myun Lee

42

Bravo! Prize Winners Appreciation

Appreciation

_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46

Activities News

Faculty Activities

Department MT

_ San-ha Lee, Department of Music Composition

음악대학 주요행사

SNU SYMPHONY ORCHESTRA

베토벤 시리즈

거장을 만나다



Ludwig van Beethoven



1770. 12. 17 ~ 1827. 3. 26

Beethoven Series

- I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이번에는 거장 베토벤과 만났다. 총 네 번의 공연으로 기획된 '베토벤 시리즈'에서 서울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베토벤의 다양한 협주곡과 교향곡을 선사했다.

첫 번째 공연은 4월 8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덕기 교수가 지휘한 이날 공연에서는 「에그몬트 서곡 Op.84」,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B♭장조 Op.19」, 「교향곡 제 6번 F장조, 전원, Op. 68」이 연주되었다.

첫 곡으로 연주된 「에그몬트 서곡 Op. 84」은 베토벤이 괴테의 비극 「에그몬트」를 읽고 감격하여 쓴 작품이다. 조국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다가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에그몬트 백작의 이야기를 다루었으며, 비애와 장대함으로 가득 차있다.

관악기의 유니즌과 현악기의 무게있는 울림으로 시작하여 긴장감 있게 진행되는 연주는 관객들을 단번에 베토벤의 세계로 끌어들이었다.

이어서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Op. 19」는 박연민(피아노 석사) 학생의 협연으로 연주되었다. 베토벤이 젊은 시절 작곡한 이 곡은 모차르트의 강한 영향과 젊은 베토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나중에 작곡된 유명한 협주곡들에 비해 자주 연주되지 않기 때문에 낯설게 느끼는 청중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박연민 학생의 차분하면서도 동시에 생기발랄한 연주는 이 곡이 지니는 매력을 훌륭하게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연주된 「교향곡 6번, 전원, Op. 68」은 베토벤이 하일리겐슈타트 지방에서 요양할 당시 주변의 자연환경에서부터 받은 감명을 작품에 녹인 것이다. 서울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조화롭고 색채감 있는 연주로 평화로운 기쁨을 잘 녹여내었다.

「에그몬트 서곡」으로 시작하여 「전원 교향곡」으로 진행된 연주는 깊은 비애와 고뇌로부터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연상하게 하며, 시리즈의 성공적인 첫 단추가 되었다.

Beethoven Series I

The SNU Symphony Orchestra planned a total of four concerts for this Beethoven Series. The opening concert was performed with Prof. Duk-ki Kim's conducting and Yun-min Park's piano accompaniment, and the programs were (Egmont Overture, Op.84), (Piano Concerto No.2 Op.19), and (Symphony No.6 'Pastorale' Op.68).

The SNU Symphony successfully initiated the 3-month long journey of Beethoven Series.





Beethoven Series

— II —

지난 4월 29일 저녁 7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SNU Symphony Orchestra가 주최한 '베토벤 시리즈'의 두 번째 무대가 펼쳐졌다.

서울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이번 공연에서는 「피아노 협주곡 제 1번 C장조, Op. 15」, 「바이올린 협주곡 제 1번 D장조, Op. 61」이 임헌정 교수의 지휘와 손아진(피아노, 13), 김계희(바이올린, 13)학생의 연주로 꾸며졌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악성 베토벤의 작품이었기에 많은 관객들이 찾아와 대강당을 꽉 채웠다.

첫 번째로 연주된 「피아노 협주곡 제 1번 C장조, Op. 15」는 베토벤 초기 작품으로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작품의 여러 곳에서 자신의 개성을 강조하려 노력한 흔적이 발견되는 곡이다. 서울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변함없는 기량과, 다채로운 음악성과 단단하고 강렬한 테크닉을 모두 갖춘 손아진 학생의 연주가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베토벤 음악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무대는 이어서 관객들을 화려한 바이올린의 세계로 이끌었다. 「바이올린 협주곡 제 1번 D장조, Op. 61」은 바이올린 협주곡에서 뿐만 아니라 서양 고전음악사 전체에서도 가장 훌륭하게 평가되는 곡들 중 하나이다. 당시 명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클레멘트를 위해 쓴 것으로 알려진 이 곡은 작품 곳곳에서 우아함이 묻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클레멘트가 환생한 듯 김계희 학생의 매끈하고 화려한 카덴차가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Beethoven Series II

On April 29th, the second stage of the Beethoven Series organized by the SNU Symphony Orchestra was held in the Grand Auditorium of the Cultural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 Hun-jung Lim, A-jin Son (Piano, '13) and Kye-hee Kim (Violin, '13) lead (Piano Concerto No. 1 in C Major, Op. 15) and (Violin Concerto No.1 in D Major, Op. 61).



Beethoven Series

— III —

‘베토벤 시리즈’의 세 번째 연주는 5월 13일, 앞선 공연들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대중들에게도 익숙한 베토벤의 음악이 연주되어서인지 큰 규모의 문화관 대강당 좌석이 관객들로 가득 들어찼다. 베토벤 시리즈의 3번째 연주 또한 오페라의 서곡, 협주곡, 교향곡으로 다양하게 채워졌다.

첫 순서는 김광현 지휘로 막이 올랐다. 〈피델리오〉는 복잡한 개작과정을 거친 작품으로, 4개의 서곡이 존재하는데, 오늘 연주에서는 1806년 개작된 제 2막의 서곡인 〈레오노레〉서곡 제 3번 Op. 72이 연주되었다. 점점 박진감 넘치며 고조되는 음향에 관객들 모두 베토벤의 음악세계에 매료된 듯 보였다.

이어서 구모영 지휘로 「삼중 협주곡 C장조 Op.56」이 연주되었다. 피아노는 노한솔, 바이올린은 윤지연, 첼로는 전희초가 연주하였다. 3개의 독주악기로 이루어진 형식은 바로크 시대의 합주 협주곡 형식을 떠오르게 했다. 세 개의 독주 악기가 주고 받는 선율적 매력과 각 악기의 협주자들의 기량이 매우 돋보였던 연주였다.

잠깐의 중간 휴식 후에 박현상 지휘의 「교향곡 제 4번 B♭장조 Op.60」가 연주되었다. 도입부의 느린 템포와 종잡을 수 없는 화성이 특징적인 곡으로 매우 신비로운 색채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특히 박현상 지휘자의 마치 춤을 추는 듯한 열정적인 모습과 서울대학교 오케스트라의 훌륭한 연주는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Beethoven Series III

The third concert of the Beethoven Series was held on May 13th in the Grand Auditorium of the Cultural Center of the SNU. The SNU Symphony performed 〈Leonore-Ouvertüren No. 3, Op. 72〉, 〈Triple Concerto (Concerto for piano, violin, cello and orchestra in C Major, Op. 56)〉, and 〈Symphony No. 4 in B♭ Major, Op. 60〉 for that day and the audience gave a big round of applause to the orchestra and soloists, being surprised of their excelling musical talent.



Beethoven Series

— IV —

지난 6월 23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베토벤 시리즈’ 그 대망의 마지막 연주의 막이 올랐다.

임현정 교수의 지휘 아래, 서울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연주회장의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가득 채웠다. 이 날, 리스트와 바그너가 ‘리듬의 화신’, ‘무도의 화신’이라 칭했던 베토벤(L. v. Beethoven)의 「교향곡 제 7번 A장조, op.92」와 우리나라에선 “운명교향곡”으로도 유명한 「교향곡 제 5번 C단조, op.67」이 연주되었다. 지휘자 임현정과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베토벤이 집요하게 추구했던 강렬함을 섬세하게 빚어냈다. 이들은 청력으로 인한 불안감을 열광적인 리듬으로 승화시켜야만 했던 베토벤의 심정까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일까, 연주 내내 긴장감 넘치는 선율들이 우리로 하여금 베토벤에 빠져들게 하였다. 교향곡 제 7번은 경쾌한 1악장에서 2악장으로 넘어가면서 묵직한 저음 현악기들이 텐션을 조성했고, 3악장에서는 과격하고 빠른 속도로 선율을 쏟아내 음악적 역동 에너지가 최고조로 올라가기도 하였다. 베토벤은 거칠고 사나운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4악장을 통해 압도적인 결론을 내며 교향곡을 마무리한다.

이어서,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 “따따따 판” 4개의 음 들음과 동시에 청중들은 또다시 베토벤 교향곡에 빠져들었다. 5번 교향곡을 통해 베토벤이 그리고자 했던 ‘운명을 극복하는 인간의 의지와 환희’를 고스란히 전해 받을 수 있었다. 곡의 끝으로 향해 갈수록, 평온한 선율에 거칠고 사나운 악센트가 더해지면서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긴장감은 점차 완화되었다. 특히 끝으로 갈수록 휘몰아치는 악센트는 청중들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도록 하였다.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단원 사이의 유기적인 호흡은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음악 안에서 함께 숨쉬고 함께 소통했다. 임현정 지휘자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완전히 장악했고 그의 손끝을 따라 단원들은 물결쳤다. 이날 무대 전체는 지휘봉으로 그린 한편의 강렬한 수채화와 같았다.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청중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지휘자 임현정과 언제나 대곡들을 소화해내며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는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만남은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다. 예술의 전당에서의 이번 공연은 베토벤을 청중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만드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세계적인 대학 오케스트라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Beethoven Series IV

On June 23rd, the very last concert of the Beethoven Series was staged in the Concert Hall of the Seoul Arts Center. On that night, Beethoven's 〈Symphony No. 7 A Major, Op. 92〉, which Liszt and Wagner called "Apotheosis of rhythm" and "Apotheosis of the dance", and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7〉, the piece well-known as "Fate Symphony" in Korea, was performed. Under the baton of Prof. Hun-jung Lim, the SNU Symphony Orchestra filled the heart of each audience with great impression.

SNU Philharmonic Orchestra 정기연주회 I

열정으로 빚어낸 뜨거운 무대

A Stage born with Passion_ SNU Philharmonic Orchestra's Regular Concert

On last April 23rd, the SNU Philharmonic Orchestra's concert was held in the Concert Hall of the Art Hall. The program included Schubert's (Symphony No. 8 in b minor 'Unfinished', D. 759) and Prokofiev's (Symphony No. 1 in C Major, Op. 25).

The audience did not hesitate to send a warm applause to the students who had put great efforts and practiced to put the music on the stage.

지난 4월 23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 슈베르트의 「교향곡 제 8번 <미완성> 1악장」이 울려 퍼지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첫 무대는 홍인교(지휘 · 14) 학생의 지휘로 슈베르트의 「교향곡 제8번 b단조, Op. 759 <미완성>, 1악장」이 연주되었다. 목관의 신비로운 제 1주제 선율은 바이올린의 섬세한 반주와 저음현의 피치카토를 배경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빼앗기 충분했다. 바순과 호른의 짧은 경과구 뒤에 나오는 대조적인 분위기의 제 2주제는 첼로가 서정적으로 노래하여 슈베르트의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었다. 절도있고 열정적인 홍인교 학생의 지휘 하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하나되어 만들어낸 1악장은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로 끝이 났다.

이어 유려하면서도 소박하고 친밀감이 있는 슈베르트 「교향곡 제8번 b단조, Op. 759 <미완성>, 2악장」의 주제가 송준혁(지휘 · 14) 학생의 지휘로 시작되었다. 2악장은 제 1악장 첫머리의 동기 활용이 돋보이며 명확한 형식성보다는 가요적 성격이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클라리넷의 아름답고 애절한 제 2주제는 단음만 남은 제 1바이올린의 위에서 떠올랐다. 2악장의 아름다운 노래가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송준혁 학생의 멋진 호흡으로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마지막 순서로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제 1번 C장조 Op. 25」이 이규서(지휘 · 13) 학생의 지휘로 연주되었다. '고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교향곡에 대해 프로코피예프는 현대음악에 고전주의를 적용시킨 점에 있어서 보수주의자들의 비난이 뒤따를 것이라 예견하면서도, 대중들은 유쾌한 이 작품에 박수를 보낼 것이라 자신하였다. 이러한 그의 자신감을 보여주듯 발랄하고 활기찬 바이올린의 주요 주제로 제 1악장이 시작되었다.

곧이어 2악장에서는 두 개의 악상을 주체로 하여 강약을 대조시키는 방법 등 고전성을 엿볼 수 있었다. 끝을 향해 치달는 4악장의 활기차고 경쾌한 에너지가 콘서트홀을 가득 메웠고, 청중들은 압도적인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무대에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였다.

무대를 위해 끊임없는 연습으로 정진하였을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늘 새로운 무대로 청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SNU Philharmonic Orchestra 정기연주회 Ⅱ

열정과 노력의 결실

여름의 싱그러움이 찾아오던 지난 5월 28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경쾌한 풀치넬라의 서곡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의 막이 올랐다.

이 날, 20세기 발레음악과 현대음악에서 큰 명성을 얻은 스트라빈스키의 「풀치넬라 모음곡」과 멘델스존의 교향곡 중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교향곡 제 4번 A장조 <이탈리아> Op.90」을 선보였다. 첫 곡은 백승현의 지휘 하에 연주되었다. 대규모의 오케스트라로 편성된 대부분의 스트라빈스키 발레 음악들과는 달리, 「풀치넬라」는 클라리넷이 배제된 목관 파트, 콘체르티노(독주부)와 리피에노(합주부)로 분리된 현 파트 등 18세기를 연상시키는 소규모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연주되는 과거 지향적인 것이 특징이다. 시작과 동시에 아름다운 멜로디 위에 하나가 되는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곡 멘델스존 「교향곡 제 4번 A장조 <이탈리아> Op.90」는 멘델스존이 24세에 완성한 곡으로, 모차르트적인 명쾌함이 드러나는 곡이다. 곡 전체에서 남부 유럽의 하늘과 상쾌한 대기의 향기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었으며, 이탈리아 특유의 리듬이 곡 전반에 흐르고 있었다. 지휘를 맡은 정한결 학생은 열정적인 지휘로 연주에 임하였고 청중들은 이에 박수로 보답하였다.

이 날 예술관 콘서트홀의 빈자리는 찾아보기 힘들 만큼 청중들의 클래식 사랑은 대단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클래식을 널리 알리고 청중들에게 늘 감동을 주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성장하길 바란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오케스트라로서의 발돋움하고 있는 SNU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Fruit of Passion and Diligence SNU Philharmonic Orchestra's Regular Concert

On May 28th, the curtain for the SNU Philharmonic Orchestra's concert rose with the cheerful melody of Stravinsky's «Pulcinella Overture». On the day, the SNU Philharmonic Orchestra performed Stravinsky's, who gained much fame in the 20th century ballet music and Modern Music, «Pulcinella Suite» and Mendelssohn's most loved «Symphony No. 3 in A Major 'Italy', Op. 90».

The concert hall was nearly packed with music loving audience and nearly no seats were available. As it has been, the SNU Philharmonic Orchestra is expected to bring.



SNU String Ensemble 정기연주회

현의 울림과 함께하는
감동의 무대

Impressive stage joined with Resonance of String_ SNU String Ensemble Concert

A concert by the SNU String Ensemble was held on May 22nd in the Concert Hall of the SNU Art Hall. The programs of the concert were led by Prof. Kang Chang Woo and included Mahler's <Symphony No. 5>, Mozart's <Sinfonia Concertante for Violin, Viola and Orchestra, KV 364>, and Britten's <Variations on a Theme of Frank Bridge for Strings>. The SNU String Ensemble demonstrated excellent musical ability and received a grand applause from the audience.

5월 22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가 펼쳐졌다. 이 날 공연에서는 강창우 교수의 지휘로 말러, 모차르트, 브리튼의 작품이 연주되었다.

첫 번째 곡으로 연주된 말러의 「교향곡 5번」은 말러의 인생이 묻어 있는 작품으로, 죽음의 고통과 사랑에 대한 환희가 담겨있다. 서울대학교 스트링 앙상블은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4악장을 연주했으며, 부드러운 현의 울림을 통해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 오케스트라를 위한 시포니아 콘체르탄테 KV. 364」가 연주되었다. 명다솜(바이올린 · 12), 장은경(비올라 · 12), 손민지(바이올린 · 13), 이건희(비올라 · 12) 학생이 협연하였으며, 비올라와 바이올린,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듯 인상적인 연주를 보여주었다.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프랭크 브릿지 주제에 의한 변주곡」은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에게 유명세를 안겨준 작품이다. 현악기의 다채로운 색채를 요구하는 이 곡을 통해 스트링 앙상블 단원들이 가진 최고의 기량을 아낌없이 드러내며 막을 내렸다.



SNU Wind Ensemble

정오음악회 2015

관악(管樂)의 소리,
관악(冠岳)에 울려 퍼지다

Brass Sound(Kwan-ak) Resounding through Gwan-ak_ Noon Concert of SNU Wind Ensemble

On a bright sunny day, May 22nd, a cheerful wind ensemble performance resounded the campus at lounge in front of the Cultural Center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beginning of the SNU Wind Ensemble NOON CONCERT 2015, students who were passing by the lounge were all enraptured by the beauty of the wind ensemble. Under the conducting of Prof. Young-Yul Kim, a total of 8 pieces were performed, and the repertoire covered from typical classical music to popular music like film music. Despite that outdoor lounge is not an optimal performance sight, audience could see the conductor and the members synchronize in unity.

햇볕이 화창하게 내리쬐던 지난 5월 22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앞 라운지에서 경쾌한 관악합주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2015 서울대학교 윈드앙상블 정오음악회의 시작과 동시에 지나가던 학생들 모두 관악합주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김영률 교수의 지휘 아래 총 8개의 곡이 연주되었고, 다양한 청중들을 고려하여 클래식 뿐 만 아니라 영화음악 등 대중적으로 유명한 곡들도 함께 연주되었다.

백승엽 학생(트럼펫)과 설용빈 학생(트롬본)의 솔로 연주 또한 많은 청중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연주 내내 땀을 비 오듯 쏟아내었던 관악전공 학생들 덕분에 관악은 더욱 싱그러운 정오를 보낼 수 있었다. 연주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휘자와 합주단원들의 훌륭한 호흡을 통해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김영률 교수는 열정적인 지휘로 연주에 임하였고 청중들은 이에 박수로 보답하였다. 더운 날 관악의 청중들에게 자그마한 쉼을 제공한 관악전공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국내 관악 분야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세계를 무대로 성공적인 연주를 이어나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관악합주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지난 5월 29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서울대학교 심포닉 밴드 정기연주회의 막이 올랐다. 최경환 교수의 지휘로 진행된 이날 공연은 Georges Bizet의 「L'Arlesienne SUITE No.1」과 David R. Gillingham의 「GATE TO HEAVEN Concerto No.1 for Marimba and Wind Ensemble」, Gioacchino Rossini의 「Introductio, Theme and Variations Solo Clarinet」, 마지막으로 Johan de Meij의 「Symphony No.1 'THE LORD OF THE RINGS」로 꾸며졌다.

다양한 구성으로 짜인 프로그램은 청중들로 하여금 연주에 빠져들도록 하였다. 공연장에는 이번 SNU 심포닉 밴드와 강수진, 김진수의 협연을 듣기 위해 모여든 발걸음으로 가득 찼다. 특히, 강수진 학생의 마림바 연주는 공연장 안에 싱그러움을 한껏 불러 일으켰다. 평소 마림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청중들은 작은 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연주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클라리네티스트 김진수는 Rossini의 곡에서 열정적인 클라리넷의 연주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풍부하고 다양한 색채로 문화관 안을 가득 채운 이번 연주는 관객들에게 많은 갈채와 호평을 받았다.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명작들로 꾸며진 이날의 무대는 SNU 심포닉 밴드의 한층 더 발전된 기량을 통해 완성되었고, 학생들의 훌륭한 연주와 최경환 교수의 탁월한 곡 해석은 무대를 감상하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SNU 심포닉 밴드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SNU 심포닉 밴드 정기연주회

다양한 시도로의
발돋움



Leaping forward to Various Attempts_ SNU Symphonic Band's Regular Concert

On last May 29th, the curtain of the SNU Symphonic Band Concert rose in the Middle Auditorium of the SNU Cultural Center. The concert was led by Prof. Kyung-hwan Choi, and the programs included Georges Bizet's <L'Arlesienne SUITE No.1>, David R. Gillingham's <GATE TO HEAVEN Concerto No.1 for Marimba and Wind Ensemble>, Gioacchino Rossini's <Introductio, Theme and Variations Solo Clarinet>, and Johan de Meij's <Symphony No.1 'THE LORD OF THE RINGS'>.

The concert hall was packed with the audience who came to listen to the SNU Symphonic Band and the soloists Sujin Kang and Jinsoo Kim. The performance was particularly distinguished for such an abundant and various sound color that filled the auditorium and received a grand applause from the audience.

국악과 봄 정기연주회

봄날에 울려 퍼진 전통 국악의 향연

Feast of Traditional Music sounding on a Spring day_ Spring Concer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On April 29th, the Spring Concert of the SNU Department of Korean Music was held in the Concert Hall of the SNU Art Hall.

The performance consisted mostly of traditional genres, except for a Gayageum quartet, and allowed the audience to be immersed in the beauty of traditional Korean music. The pieces performed included <Wind Bohuja>, <Gayageum Quartet 'Tall Woods'>, <Cheonnyeonmanse (String music)>, <Lied 'Doogeo' in the key of Pyeongjo for female voice>, and <Folk tune 'Yukjabaegi(Six words to the line)>



봄 꽃 향기가 물씬 풍기던 4월 29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의 봄 정기연주회가 음악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객석은 국악과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기 위해 찾은 수많은 서울대 학생들, 학부모님들로 가득 찼다. 공연이 시작되자 객석은 뜨거운 환호성으로 가득 메워졌다.

이번 연주회는 국악의 풍취를 물씬 느끼게 할 수 있는 6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가야금 4중주곡을 제외하고 모두 전통적인 장르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청중들의 흥미를 끌었다.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관악합주부터 섬세한 구성이 일품인 현악합주와 가곡 여창, 그리고 국악의 흥을 한껏 뽐내는 산조 병주와 민요 등을 모두 감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도, 국악 애호가에게도 국악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첫 순서는 송나라 사악 계통의 음악으로 다양한 파생곡들 중 관악기와 수악절 가사를 얹어 연주되는 「관악보허자」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얹히고 설키면서 그 어우러지는 모양이 인상적이었던 가야금 4중주 류형선 작곡의 「키 큰 나무 숲」이 연주되었다. 세 번째 순서는 첫 번째 순서로 연주된 보허자 계통의 악곡인 현악 합주곡 「천년만세」가 연주되었다. 맑은 양금소리와 가야금, 거문고 가락의 섬세함이 돋보였다.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천년만세에 이어 민속악의 꽃이라 불리는 산조가 거문고와 아쟁의 병주로 연주되었다. 다른 매력을 가진 거문고와 아쟁이 만나 한감득류 거문고 산조의 구수하면서도 단아한 가락을 신명나게 풀어냈다. 이어서 청명한 여창의 음색이 돋보였던 「여창 평조 두거」가 연주되었다. 관현 반주에 맞추어 시조시 '일각이'가 노래되었는데, 애절한 사랑과 그리움이 여창의 목소리를 통해 더욱 극대화되었다. 마지막 곡은 남도 민요 「육자배기」로, 사설의 변화와 함께 장단이 다채롭게 변화하며 여러 악기들의 수성가락이 돋보였다. 남도 가락 멋의 집약체로 불리워지는 육자배기와 서울대학교 국악과 학생들의 훌륭한 연주 기량이 만나 국악의 흥과 멋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연주가 끝난 뒤 객석에서는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렇게 국악과 봄 정기 연주회는 관객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악과 신입생 연주회

설레는 첫 발걸음

First Step full of Thrill_ Freshmen Recital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On March 25th, Freshmen Recital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was held in the Concert Hall of the SNU Art Hall.

The performance repertoire consisted of pieces of various genres, like <Kyungpungnyeon (Harvest Dance)>, <'Shinyunmaji' from Chunhyangga>, <Il-chul(Sunrise) for string orchestra>, <Pyunglong for female voice>, and <Ensemble No. 1>.

Through the performance of the freshmen,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could build greater bonding among the members.



3월 25일 음악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신입생들의 연주회가 열렸다.

국악과의 신입생 연주는 각 입학한 신입생들이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꾸려 진행되는 만큼 매우 뜻깊은 연주회이다. 객석은 곳곳한 신입생들의 연주를 지켜보는 국악과 2, 3, 4학년 선배들과 교수님들의 참석으로 매우 단란한 분위기로 채워졌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총 5곡이 연주되었다. 국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정악곡을 비롯하여 판소리, 현악 합주, 관현악곡까지 매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순서로는 풍년을 기뻐한다는 뜻을 가진 가곡 두거를 기악곡화 한 「경풍년」이 연주되었다. 이어서 「춘향가 중 신연맛이」가 연주되었다. 자진모리의 흥겨운 장단으로 연주회의 흥을 돋구었다.

다음 순서로 정대석 교수님 작곡의 거문고와 가야금을 위한 「현악합주곡 일출」이 연주되었다. 일출의 회화적인 인상이 거문고의 묵직함과 가야금의 재빠르고 화려한 특징으로 조화롭게 어우러져 나타났다. 다음 순서로는 다시 차분한 국악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여창 평릉」이 연주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입생 문도원 군의 지휘에 맞추어 관현악곡인 김희조 작곡의 「합주곡 1번」이 연주되었다. 우리나라 민요, 남도창, 민속음악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 감각의 조화가 엿보였다.

이 날 신입생들의 연주를 통해 더욱 하나되는 국악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공연을 위해 수고한 국악과 15학년 신입생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더욱 발전될 그들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화합과 성장, MOU 체결 인디애나 대학교 MOU 체결



지난 3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은 인디애나 음악대학과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인디애나 제이콥 음악대학은 학교 간에 이루어진 체결을 통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두 대학 간의 음악 교육의 교류(교환학생 프로그램, 교수진의 교환 연수 프로그램)와 협동 프로그램, 공연 및 연구의 교류 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MOU 체결 전, 인디애나 대학교 챔버 오케스트라(The Indiana University Chamber Orchestra)의 공연이 열렸다. 뭉치시의 곡을 시작으로 한국을 위

해 특별히 편곡해온 한국 민요를 앙코르로 연주하였다. 연주회가 끝난 후 인디애나 대학교 대표단들을 포함한 400여명의 청중들이 박수와 갈채로 호응했다. 챔버 오케스트라를 이끈 Fleezanis 교수는 “재능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서 공연하기로 한 결정은 그 자체로써 학생들에게도, 학교에게도 엄청난 결심이었어요. 집을 떠나 국제적인 도시에서 관객들을 마주하는 것은 그들의 성장과 자신감에 굉장한 자산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학교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경험을 통해 이들은 전 세계적인 언어로서의 예술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라며 서울대학교에서의 공연에 대한 감동을 전했다. 새로운 역사적 여정을 함께 걷게 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인디애나 제이콥 음악대학, 앞으로 그들의 행보가 기대되는 바이다.



사진출처 : 인디애나 대학교 홈페이지

Harmony and Growth, signi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diana University Chamber Orchestra came to Seoul to make history. The first-ever Asian tour by IU's world-renowned Jacobs School of Music started at SNU. Just minutes before the concert, the deans of IU's Jacob School and College of Music at SNU signed a partnership agreement. The growth of these two Universities is expected through various educational and academical exchange.

예술계 복합연구동 개관 행사



서울대학교의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이 함께 주관하여 건설된 '예술계 복합연구동'이 오랜 기다림 끝에 준공을 마쳤다.

이를 기념하여 4월 16일과 17일에 걸쳐 준공식과 연주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예술계 복합연구동은 전시관과 아카이브, 연구공간 및 서울대 구성원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며, 예술교육을 위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이다.

I. Stage of Joy and Impression, Heralding a Great Beginning_ Commemoration Concert of the Completion of Art Research Complex Construction <A Dream of Butterfly>

On last April 16th, a concert titled <A Dream of Butterfly> was held in commemoration of the completion of Art Research Complex construction. The concert consisted of various colorful programs, like performances of Korean Music ensemble, string ensemble, wind ensemble, chamber music and male voice ensemble, and was given much significance for symbolizing a joy and impression of new beginning.

I 기쁨과 감동의 무대, 그 위대한 시작을 알리다_ 예술계 복합연구동 준공기념 음악회 <나비의 꿈>

지난 4월 16일,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긴 공사를 끝낸 예술계 복합연구동의 준공을 기념하여 <나비의 꿈>이라는 이름의 연주회가 열렸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연주회에서 청중들과 연주자들 모두 설레는 기분으로 기다린 첫 무대는 국악 앙상블 「소리울」의 무대였다. 공간을 메우고 있던 딱딱한 긴장감이 소리울의 연주로 인해 순식간에 울창한 숲 속에 들어와 있는 듯 상쾌함으로 변모했다. 해금과 정가. 단 두 악기로 시작하여 단원들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합쳐져 하모니를 이루고 마침내 더해지는 매혹적인 음색의 국악기들의 소리가 기존의 소리와 어우러져 신비롭고 기분 좋은 출발을 선사했다.

다음 무대는 드보르작의 「현악 4중주 No.12 F장조 Op. 96 <American>」이었다. 드보르작이 미국에 이주하여 스피필(Spillville)이란 마을에서 휴가를 보내며 보름 만에 작곡한 이 곡은 드보르작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곡이다. 김계희(바이올린 · 13), 이은새(바이올린 · 13), 이건희(비올라 · 12), 윤설(첼로 · 14)학생은 'Nigger(흑인)'라는 별명을 가진 이 곡의 흥겹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잘 살려 연주했다.

이어 모차르트의 「Serenade C단조 for 2 Oboes, 2 Clarinets, 2 Horns and 2 Bassons」를 김영률 교수, Maurice Bourgue 교수와 한이제(오보에 · 14), 정유진(클라리넷 · 13), 강미루(클라리넷 · 14), 고영종(호른 · 14), 김소연(바순 · 14), 정현진(바순 · 14)학생이 함께 연주했다. 연륜이 묻어나는 연주자들의 노련함과 학생 연주자들의 신선함이 어우러져 관악기의 소리가 더욱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무대였다.

네 번째 무대는 예술복합연구동의 새로움 만큼이나 국악기와 양악기의 조화가 신선한 가야금, 바이올린, 피아노의 앙상블 무대였다. 임준희 작곡의 「댄싱산조」는 세 악기의 다양한 색채와 기법을 한껏 살린 이색적인 곡이었다. 연주는 최은선(가야금 · 국악석사), 김계희(바이올린 · 13), 고연경(피아노 · 기악과 졸업)이 동적임과 정적임의 조화를 보여주었다.

마지막 무대는 남성 중창단 Bel Suono의 의미있는 무대로 꾸며졌다. 「Canzone Medley」와 「내 마음의 강물」의 노래를 시작하기 전,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아픔을 준 '세월호 사건 1주기'를 추모하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노래하여 객석에 앉아있던 청중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국악앙상블, 현악앙상블, 관악앙상블, 실내악, 남성합창으로 다채롭게 꾸며진 이번 예술계 복합연구동 준공기념 음악대학 음악회는 새로운 시작의 기쁨과 감동이 담긴 무대들로 청중들과 연주자들에게 의미 있는 연주회가 되었다.



II 예술교육연구에 대한 새로운 활력의 기운_ 예술계 복합연구동 준공기념 국제학술대회 「창의시대와 예술교육의 새로운 비전」

4월 17일에는 「창의시대와 예술교육의 새로운 비전」(New Vision of Arts Education in Creative Age)을 주제로 예술계 복합연구동 준공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프로그램은 2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한국, 미국, 일본, 대만에서 온 음악과 미술 분야의 주요 석학들이 참여했다. 또한 축사를 위해 이우일 서울대 연구부총장과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학회의 기조강연을 맡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미술과 음악 두 분야의 다양한 연구가 함께하는 예술계 복합연구동 건립을 기념하여, 끝없이 분화되는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융복합이란 무엇인지 되새기도록 하였다.

Paul Coffey 교수는 시카고 예술대학의 초학제적 시스템과 지역사회 참여를 소개하였으며, 이경면 BK교수(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는 「음악교육의 신경생물학적 영향」에 대해 강연하였다. 이경면 교수는 음악 교육이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능력을 상승시켜 결과적으로는 언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했다. 콘텍스트에 대한 이대형 아트디렉터의 강연으로 1부가 마무리되었다.

김귀현 서울대 음악대학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제 2부의 첫 강의는 미술대학의 김형숙 교수가 맡았다. 이어서 국악계의 거목인 황병기 교수가 「한국전통음악의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전통음악을 이루는 다양한 개념들과 가능성에 대해 짚어보았다. 황병기 교수는 한국의 전통음악에 잠재된 아방가르드적 요소를 확장하거나 서양 음악의 요소를 수용하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음악을 창작할 수 있음을 소개했다.

헤르만 고체프스키 교수(동경대학교)의 강연 - 「“음악”의 허구에 대하여: 현대사상이라는 불필요하고 실패한 개념을 극복하기」 - 에서는 창조성의 관점에서 “음악”이라는 개념이 지닌 의미에 의구심을 갖는다. “음악”의 개념은 서양 사상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서양적 개념일 뿐,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음악적인 것과 비음악적인 것의 구분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이 주요 논지이다.

마지막으로 대만의 Jen-yen Chen 교수(국립 대만대학교 음악대학장)는 「초기 근대 문화간 대면의 역학」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중국 제국을 배경으로 삼은 메타스타시오의 오페라를 소개하고, 두 문화권이 만난 이 작품들의 기승을 오스트리아가 당시에 놓았던 정치적 상황 안의 맥락 안에서 해석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두 분야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청중과 발표자들 간에 오고간 논의들은 예술의 다학제적이고 창의적인 융복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예술계 복합연구동의 출발과 함께 이루어질 앞으로의 성과를 더욱 기대해본다.

II. New Energy of Vitality for Art Education Research_ Commemoration Conference of the Completion of Art Research Complex Construction <Era of Creativity and New Vision for Art Education>

On April 17th, an international conference was held in commemoration of the Completion of Art Research Complex construction with the theme of 'New vision of Arts Education in Creative Age'. This conference was more significant in that it was co-organized by the College of Music and College of Fine Arts and thus a sight of sharing recent research of both fields. The conference began with the keynote speech by Eo-ryung Lee, Former Secretary of Ministry of Culture, and Prof. Kyung-myun Lee (Seoul Nat. Univ., BK Professor), Gayageum player and composer. Prof. Byunggi Hwang, Hermann Gottschewski (Tokyo Univ.) and Jen-yen Chen (Taiwan Nat. Univ.) participated as presenters of Music and presented various topics on music education and creativity.

서울대 가족과 관악주민을 위한 화요음악회

2015년 1학기 화요음악회는 3월 10일 공연을 시작으로
6월 16일까지 6번의 무대로 이루어졌으며
화요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73동)에서 열렸다.

화요음악회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관할 구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 예술 공연 행사로서, 관객들에게 국·내외 저명한 연주자들의 연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94년 '수요음악회'로 시작되어 1996년에 '화요음악회'로 명칭을 바꾼 뒤
현재까지 다양한 동·서양의 음악을 선보이며 계속되고 있는 본 연주회는
관객들이 음악을 보다 친숙하고 가까이 받을일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10 / 윌리엄 다우텔, 피오뉴알라 헌트, 디어브라 브로스넌

첫 번째 화요음악회의 문은 아일랜드에서 찾아온 연주자들이 열었다.
RTE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제1 플루트주자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는 플루티스트 윌리엄 다우텔(William Dowdall), 솔로 연주자와 지휘자를 오가며 폭넓은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피오뉴알라 헌트(Fionnuala Hunt), 아일랜드를 비롯한 세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디어브라 브로스넌(Dearbhla Brosnan)이 호흡을 맞추었다. 세 명의 연주자는 마르티누(B. Martinu)의 「플룻,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H.254」, 하티(H. Harty)의 「In Ireland」, 모차르트(W.A.Mozart)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304」, 버클리(J.Buckley)의 「Sea Echoes」, 메시앙의 「검은 티티새」, 로타(N.Rota)의 「플룻, 바이올린, 피아노 삼중주」를 연주하였다.

3.17 / 타티아나 사무일, 알렉산더 부츠로프

두 번째 화요음악회는 「Synergy in Music」이라는 주제로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다.
본 공연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기업 가즈프롬이 후원하여 러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간 문화교류의 장으로서 마련되었다.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러시아의 두 연주자 - 바이올리니스트 타티아나 사무일(Taatiana Samouil)과 첼리스트 알렉산더 부츠로프(Alexander Buzlov)가 참여한 본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주희성, 바이올리니스트 나윤아, 비올리스트 최은식 등 국내 굴지의 연주자들이 함께하였다.
이들은 라벨(M.Ravel)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소나타」와 슈만(R.Schumann)의 「피아노 및 현악기 5중주 Op.4」을 연주하며 함께 호흡을 맞추었다.

3.24 / 폴 반즈

세 번째 화요음악회는 열정적인 연주와 전율을 선사하는 피아니스트로 주목받는 폴 반즈(Paul Barnes)의 무대로 이루어졌다.
고전 뿐 아니라 현재 우리와 같이 숨쉬는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이 연주회에서는 Jonah Gallagher의 「무한」, Lucas Floyd의 「피아노 생각 Vol.1」, Victoria Bond의 「구원의 잔」, Jason Bahr의 「세 개의 전주곡」, Zack Stanton의 「경치 좋은 길」, N. Lincoln Hanks의 「기인」이 연주되었다.
이 날의 공연은 1999년~2013년 사이에 작곡된 신선한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연주자 폴 반즈는 「구원의 잔」을 연주할 때 관객들이 함께 노래하도록 하는 등 현대음악의 재미있고 다양한 매력을 알렸다.

For SNU family and Gwan-ak Residents_ Tuesday Concert Series

Tuesdays concerts is a series of free concert held every semester as service to the members of the SNU and Gwanak residents. The Tuesday concerts of the 1st semester of 2015 consisted of 6 performances, from March 10th to June 16th, held every Tuesday 4:00 p.m. at the Middle auditorium of the SNU Cultural Center (Bld. 73). The programs of this semester included a stage by a guest performer from Ireland, Russian musician invitation, Paul Barnes's Modern Music recital, Gila Goldstein and Alexander Korsantia's piano recital and Amant Quartet's performance.



5.26 / 길라 골드슈타인

네 번째 화요음악회는

길라 골드슈타인(Gila Goldstein)의 피아노 리사이틀로 구성되었다.

뛰어난 기교와 해석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길라 골드슈타인은 현재 보스턴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세계 각지에서 연주와 심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부조니(F. Busoni)가 편곡한 바흐(J.S. Bach)의 「샤콘느」로 관객을 사로잡으며 공연을 시작한 길라 골드슈타인은 쇼팽(F.Chopin)의 「녹턴 op.1 no.1」, 「베틀노레 op.60」, 예디디아(R. Yedidia)의 「왈츠 no.21」, 폴랑크(F. Poulenc)의 「즉흥곡 no.15」, 「노벨레테 no.3」, 뎀포우(F. Mompou)의 「노래와 춤 no.6」, 파야(M. d. Falla)의 「"La Vida Vreve"에 의한 스페인 춤 no.1」을 연주했다.

6.9 / 알렉산더 코르산티아

다섯 번째 화요음악회에는

알렉산더 코르산티아(Alexander Korsantia)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공연되었다. 조지아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코르산티아는 현재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의 교수이며 다양한 연주 활동을 통해 다재다능함을 인정받고 있다.

하이든(J. Haydn)의 「소나타 Hob XVI/1」, 라벨(M. Ravel)의 「라 발스」와 베토벤(L. v. Beethoven)의 「소나타 Op.7」을 차례로 연주한 알렉산더 코르산티아는 아름다운 음색을 통해 펼쳐지는 진솔한 연주로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6.16 / 아망트콰르텟

마지막 화요음악회의 무대는 아망트 콰르텟이 장식했다.

2014년에 창단되어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을 넘나들며 관객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아망트 콰르텟은 모차르트의 「현악 사중주 K.465 <불협화음>」과 라벨(M. Ravel)의 「현악 사중주」를 연주하였다.

이 날의 연주는 시대와 스타일이 전혀 다른 두 작곡가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현악 사중주의 매력을 선사했으며, 아망트 콰르텟은 뛰어난 실력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만큼 성숙하고 조화로운 연주를 들려주었다.

Art Space@SNU 2015 서울대학교 예술주간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Art Space@SNU'라는 제목과 함께 서울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예술주간 행사가 개최되었다.



서울대의 구성원이 가진 풍부한 예술적 역량을 즐겁게 공유하는 취지를 가진 이 행사는 음악 연주, 미술 전시, 연극, 시낭송 등의 예술 행사로 구성되었다. 음악 대학에서는 합창, 피아노와 하모니카 연주, 관현악 앙상블, 사물놀이, 판소리 등의 공연을 준비했다. 특히, 음악공연들이 문화관 앞 또는 학생회관 아크로 앞에서 펼쳐졌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예술주간 행사를 통해 거리로 나온 음악대학 학생들과 거리를 건다 음악에 사로잡힌 교내 구성원들의 소통의 장을 만나볼 수 있었다.

예술주간 첫 번째 음악공연은 11일에 열린 이윤석, 임여은 학생의 「하모니카와 피아노를 위한 판타지였다. 하모니카와 피아노가 선보인 작은 앙상블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예술주간의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하모니카를 연주했던 이윤석(작곡이론·11) 학생은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진 행사에서 공연을 하게 되어 기쁩습니다.”라고 공연 소감을 밝혔다.

SNU 트럼본 앙상블은 ‘힘,을,내,요, 슈!퍼!파~월~’이라는 연주 타이틀을 가지고, POWER, Water Music, Aria, Gospel Time, Funiculi Funicula 등을 연주했다.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음악을 즐겼고, 공연이 끝나자 앵콜을 외치며 환호했다. 공연 시간이 정해져 있는 행사였기에, 앵콜곡을 연주할 수 없었던 연주자들과 앵콜곡을 듣고 싶었던 관객들 모두 아쉬움이 남았던 공연이었다.

‘피아니스타그램#5월#성공적’. 기악과 피아노 전공 방경난, 우용기, 김혜준, 손아진 학생이 준비한 피아노 공연으로,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제 2번」, 「연습곡 Op.10, No.4」, 리스트의 「파가니니 연습곡 중 라 캄파넬라」, 「죽음의 무도」 등 화려한 기교와 웅장한 사운드, 그리고 연주자들의 카리스마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곡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4명의 연주자들이 선보인 ‘8 Hands’ 공연이 인상적이었는데, 연주 중간 중간에 펼쳐진 퍼포먼스와 8 Hands 만이 낼 수 있는 커다란 사운드가 길을 가던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합창으로 서울대 모든 구성원이 하나 되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성악과 재학생들이 합창 공연을 펼쳤다. 임현기의 지휘와 함께 성악과 학생들은 ‘스와니 강’ 등을 부르며 하교 시간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아름다운 화음으로 가득 채웠다.

예술주간 거리공연을 관람한 남수진(사회교육·10) 학생은 “예술주간 행사 기간 동안 학교 곳곳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거리공연을 통해 관객에게 가까이 다가선 음악대학 학생들과, 수준 높은 음악 공연을 캠퍼스 거리에서 접할 수 있었던 서울대학교 구성원들. 5월 축제와 함께 진행되어 학내 문화적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예술주간 행사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김석영(작곡과 이론전공 4학년)

Art Space@SNU_ 2015 SNU Art Week

From May 11th to 15th, the first Art Week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took place, with the title of 'Art Space@SNU'. The event, held with the purpose of the SNU members freely sharing and demonstrating their rich artistic ability and talent, consisted of music performances, art exhibitions, dramas, and poem recitation.

나눔과 감동의 작은 음악회 제 8회 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울음대 병원음악회

지난 4월 6일, 종로구 연건동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로비에서 아름다운 현악 4중주의 연주를 시작으로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제 8회 서울음대 병원음악회'가 열렸다.

최은식 교수의 지도아래 연주자 이경민, 이수민, 강희윤은 모차르트의 현악 4중주 'Eine Kleine Nachtmusik 'Serenade'를 연주하였다. 어수선하던 병원의 로비는 어느 순간 환자들과 보호자, 방문객, 의사들로 가득 채워졌고, 각 악장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의 박수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감동적인 현악 4중주의 연주가 끝나고, 여요한, 김수환, 최영현, 장원진으로 구성된 <에스윗 색소폰 콰르텟>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에스윗 콰르텟은 청중들과 교감하기 위해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곡으로 G선상의 아리아, Libertango, Oh! lady be good, Twinkle Twinkle 총 4개의 곡을 선보였다. 그들은 몸을 들썩이게 하는 연주와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환자와 가족의 상한 마음을 모두 치유해주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남성중창단은 병원음악회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끄는 데 한 몫을 했다. 그들의 풍성한 성량은 병원 로비를 가득 채웠고, Stein song, perhaps love, 경복궁타령, La donna a mobile, Brindisi 총 5곡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매 연주가 끝날 때마다 관객들은 박수와 갈채를 보냈고, 그들의 앙코르까지 이어졌다.

오랜 투병기간과 제한된 병실 생활로 인해 쇠약해진 환자와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작게나마 기쁨과 활력소를 얻게 되었다고 말하며 그 감동을 전했다. 아픈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복을 전하고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보람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음악대학으로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Heart-warming concert of share and touch The 8th SNU College of Music Hospital Concert for Patients and Families

On last April 6th, the 8th SNU Hospital Concert for Patients and Families were held in the lobby of the Main Building of the SNU Hospital located in Yongon Dong, Jongno. Under the instruction of Prof. Ensik Choi, Mozart's string quartet <Eine Kleine Nachtmusik 'Serenade'> was performed, and 'Swith Saxophone Quartet' performed played the pieces that are well known to the public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more closely. A vocal ensemble appeared as the last program and took a big role in bringing the atmosphere of the concert into the climax. It by itself is a valuable time to share our love and hope with ill patients in a way that we are best at.



책임감으로 내딛은 교육자의 걸음

지난 6월 26일, 지난 학기부터 서울대학교 작곡과의 교수로 부임하여
줄곧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서정은 교수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나
그녀의 삶과 교육철학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작곡과 신임교수
서정은



먼저 교수가 된 소감을 묻자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한 마음이에요. 음악학 분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기도 기회를 얻지 못하시는데, 이러한 자리가 주어진 것에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라며 겸손한 자세로 감회를 밝혔다.

부임 후 서정은 교수의 첫 학기에 대해 들어보았다. “강사로 10여 년 간 학교에서 많은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미 알고 지내던 학생들도 있었고 특별히 생소하거나 어려움은 없었어요. 이번 학기에는 연주와 작곡실기에 출중하지만 그것을 글로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그 기본을 잡아줄 수 있는 음악연구방법론이라는 대학원 수업을 했어요. 저도 오랫동안 작곡과 연주를 하던 사람으로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음악을 바라보는지, 처음 글을 쓸 때 무엇이 가장 어려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이해하고 가르치는데에 더 수월했고 재밌는 수업이었어요.”

특히 작곡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의 말이 있는지 묻자 “자기의 작품세계를 찾는 작업을 하라고 얘기 해주고 싶어요. 음악사에서 19세기에서 20세기만 되짚어 봐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음악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작곡 기법도 배우고, 또 20세기 어떤 작곡가들이 어떤 음악을 만들어냈는지도 공부하면서 자기만의 음악세계를 만들어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음악사나 음악이론 그 외의 어떤 분야를 공부하든지 그 출발점은 실제 음악 작품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음악 작품을 악보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더 많이 접하고 음악에 대한 자신만의 통찰력을 기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라며 학생들에게 음악에 대한 자신만의 시야를 가질 것을 강조했다.

이어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자의 모습에 대해 묻자 “단순히 학점이 수만을 목적으로 듣는 수업을 하고 싶지는 않고, 학생들이 인생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즐겁게 향유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싶어요. 또 수업 때 정보, 지식만을 주는 무관심한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의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들어주고 가능하다면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꿈에 대해 들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음악이론이라는 분야가 아직 많이 활성화 되어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좋은 연주가, 작곡가로서 평생을 음악가로 살 때는 음악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작품을 해석하고 분석 할 수 있는 능력 등 이론적인 소양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연주가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이론을 하고 싶어요. 또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회에 제가 가진 것을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맡은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학교와 학생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인터뷰 내내 음악에 대한 사랑과 학생들을 향한 따스한 마음이 느껴지던 서정은 교수. 끊임없이 자신이 사회의 남길 족적과 기여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스승으로서 학생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줄 그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Step as an Educator taken with Responsibility_
Prof. Jeong-Eun Seo
of the Department of Music
Composition

Jeong-Eun Seo

On June 26th, I could meet Prof. Jeong-Eun Seo, who has been managing a busy schedule since her first appointment to the Department of Music Composition of the SNU College of Music last semester.

I listened to her life and educational philosophy as a musicologist with in-depth knowledge in both theory and practice. I look forward to see her future prospect as an educator who live with the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footmark that she will leave in the society with a warm heart towards students and love for music.



피아노과 신임교수
Ian Hobson

2015년의 새 학기가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는 6월 12일. 기악과의 신임교수로 부임한 피아니스트 이안 홉슨(Ian Hobson) 교수의 레슨실을 찾았을 때 그는 한 학생을 지도하는 중이었다. 이안 홉슨 교수의 질문에 학생은 다소 서툰 영어지만 즐겁게 대답했다.

열정의 탐험가,
음악적 여정의
길잡이

Passionate Explorer and Guide of Musical Journey_ Prof. Ian Hobson of the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Ian Hobson

Prof. Ian Hopson, who just began a dear relationship with the SNU this year, is a true maestro with enduring passion as a pianist as well as educator. His spirit of challenge, approaching various kinds of repertoires and the broadening the boundary of musical activity, is becoming an exemplar to many students. He said he wants to have real communication with students and become a guide to their musical journey.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학기를 보낸 소감을 묻자 이안 홉슨 교수는 “굉장히 즐거웠다”고 답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이안 홉슨 교수는 지난 40년동안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재직하며 수많은 음악가들을 길러내었다.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 등을 통해 이미 서울대와 인연을 맺었던 그의 부임은 학생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는 그동안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뿐 아니라 리사이틀을 비롯한 활발한 연주 활동을 쉬지 않았다. “대학에 다닐때부터 음악의 각기 다른 다양한 측면들에 흥미를 느껴왔습니다. 지휘는 예일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지휘법을 배우고 지휘자로 무대에 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그는 “피아노의 레파토리는 매우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종의 ‘탐험’을 해야 합니다. 옛 시대의 작품을 연주할 때는 그것이 당시의 악기로 어떻게 연주되었을지 우리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20세기가 지나서도 피아노 음악은 계속 발전하고 변화해왔기 때문에 현대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죠” 라고 말하며 음악가로서 도전과 탐험에 열정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연주 활동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두 가지는 상호보완적입니다. 물론 혼자 연주할 때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청중과 주고받는 영향 등 모든 것을 제가 결정해야 하죠. 반면에 레슨할 때는 학생들에게 제 방식대로 연주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들 각자의 방식으로 연주하되, 더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죠. 레슨할 때 저와 학생은 작곡가가 작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답’을 갖고있는 것은 아니지만 길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교육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그는 “학생들 개개인은 모두 특별하고 재능이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다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연주를 들으면서 ‘그 음악에 무엇이 담겨있을까?’ 혹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등의 질문을 던지며 학생과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따라야 하는 법칙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막 음악에 발을 들여놓은 학생들이 저의 경험과 지식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라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악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구하자 그는 무엇보다도 ‘음악적 철학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좋은 연습 습관이나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우선 음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으며, “물론 공부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배운지 오래된 레파토리를 다시 접했을 때 더 잘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매우 의미 있고 즐거운 과정이고, 학생들 각각이 하게 될 여행과도 같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음악을 한다는 것은 끝없는 열정과 탐구 정신으로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과 같다고 말하는 이안 홉슨 교수. 그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학생들의 음악적 여정의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펼쳐질 그의 행보를 기대한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2015년 6월 아침,
서울대학교 국악과 최초 피리 교수로 부임한 김경아 교수를 찾았다.

국악과 신임교수
김경아



이른 오전 시간이었음에도 넘치는 에너지와 활력으로 반갑게 맞아주셨다. 김경아 교수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피리 수석단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정악, 민속악을 비롯한 다양한 창작음악에서도 왕성하게 연주자로서 활동하였다. 또한 그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이며, 국악의 대중화를 이끈 국악 그룹 슬기둥의 전 멤버이기도 했다.

20여년 오랜 기간 연주자의 길을 걸었던 김경아 교수에게 부임 소감을 묻자 “너무 영광스럽고, 20여년 연주생활을 통해 체득하고 체록했던 음악들을 기본이 출중한 학생들과 더불어 음악 발전에 이바지 해야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교육자의 삶에 있어서는 “연주자로 오랜 기간 활동했지만, 꾸준히 대학교에 출강하며 교육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교수 부임 이후에 이전 삶으로부터 동떨어진 느낌은 없다”고 하며 가장 바뀐 것은 “보다 나은 방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고민이 많아졌다”고 하였다.

전통 음악 연주자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에 관해 묻자 “국악 연주자로서 대중화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틀에 매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 순간 “전공하고 있는 악기인 피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음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새벽에 산조 연습을 하며 전통음악의 근본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답했다. 그렇게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킨 순간 2007년부터 전통음악 독주의 기회가 많아지고 여러 기회를 잡으셨다며 “고민한 순간 그냥 넘기지 말고 꼭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셨다. 그리고 국악의 대중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섞은 크로스 오버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악기와 음악, 한국 전통음악에 대해 정확히 안 뒤에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진정한 크로스 오버”라고 말하며 “스스로 하고 있는 음악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한다”고 답했다.

연주 수업시간에 이론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다고 묻자, “연주와 이론 사이에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연주자들이 연주를 잘 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론을 알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하며 “국

악을 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음계’를 연습하는 것이 아닌 ‘곡’을 연습하는 것”, “객관적인 체계를 가지고 주관적인 세계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리된 이론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가능해지는 ‘제대로 된 크로스 오버’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주자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구하자 “**실패함,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지치지 말아라**” 라고 답했다. 연주자로 사는 것은 끊임없는 계단을 오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치지 않고 국악에 대해 고민하며 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경아 교수. 전통 국악, 창작 국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로서, 그녀보다 더 나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싶다는 열정적인 교수의 모습으로서 앞으로 그녀가 오를 계단이 궁금해졌다.



Passion that never fades!_ Prof. Kyung-A Kim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Kyung - A Kim

On one morning of June, 2015, I went to visit a new professor, Prof. Kyung-A Kim, the first professor in Piri(Korean flute). She has been a principal Piri player of the KBS Traditional Music Orchestra for 20 years, and actively engaged in both creative and traditional Korean music genres as a court music and Daechwita(Military band music) bearer. Despite her lengthy traditional musician career, she does not cease asking the true identity of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through her passion, the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are expected to advance much further.

꿈을 좇는 그들

REVE String Quartet

레브 스트링 콰르텟



레브 현악 4중주단(REVE String Quartet)은 현재 서울대학교 기악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으로 팀에 담긴 불어 Reve의 '꿈'이라는 뜻은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 꿈을 꾸고 이뤄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창단 이래 라이징 스타 콘서트 연주회를 비롯해 다양한 공연을 소화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 <금호 영 아티스트 챔버 오디션>에 합격하며 성공적인 연주를 가졌다.

Dream Seekers_ Student Ensemble/REVE String Quartet

The REVE String Quartet is a group consists of currently-enrolled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of the SNU College of Music. As the title REVE, meaning 'dream' in French, indicates, young artists dream and eagerly put efforts to fulfill the dream. Since its establishment, the quartet has been demonstrating active musical activities, like Ujung Rising Star Concert. In addition, they won the <Kumho Young Artist Chamber Audition> and had a successful concert and also won the first place in Chamber music in Korean Chamber Orchestra National Music Competition.

Q. 안녕하세요. 레브콰르텟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수진 : 안녕하세요. 저희는 레브 스트링 콰르텟입니다. 저희 팀은 1st 바이올린 서수진, 2nd 바이올린 유지은, 비올라 권오현, 첼로 이보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2년에 결성되어 지금까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콰르텟을 결성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오현 : 사실 기악과의 필수 이수 과목 중에 실내악 과목이 있어서 친한 친구들과끼리 모여 만들게 되었어요. 실내악 수업은 모두 이수하였지만 콰르텟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실내악에 매력을 느껴 계속해서 레브 콰르텟으로서 연주하고 있어요.

Q. 콰르텟으로서 호흡은 어떤가요?

보배 : 저희는 자매 같아요. 저희도 처음엔 저희가 이렇게까지 친해질 줄은 몰랐어요. (웃음)

지은 : 심지어 자랑 수진이는 어느 날 보니까 서로 활을 똑같이 쓰고 있어서 둘 다 깜짝 놀랐어요.

Q. 레브 콰르텟의 호흡의 비결이 있다면?

오현 : 저희도 처음부터 호흡이 잘 맞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나,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어요.

Q. 특별한 작품 혹은 연주가 있다면?

수진 : 저는 Leos Janacek의 「현악사중주 제2번 '비밀 편지', JW 7/13」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해석, 테크닉 모두 까다로운 곡이기 때문에 저희에게겐 하나의 도전이었는데 연주를 잘 끝내고나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Q. 레브 콰르텟의 추구하는 앞으로의 모습은?

지은 : 청중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무대를 만들고 싶어요.

Q. 나에게 레브 콰르텟이란?

수진 : 치열한 경쟁에 지쳐있던 제가 다시 악기를 열심히 하게 만들어준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보배 : 이제는 정말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콰르텟 친구들이 많은 의지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레브 콰르텟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유쾌한 색소폰 콰르텟을 만나다

S.with Quartet

에스윗 콰르텟

Q. 안녕하세요.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수룡 :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출신의 4명의 색소폰 주자로 된 색소폰 콰르텟입니다. 리더 여요한(소프라노)과 김수룡(알토), 최영현(테너), 장원진(바리톤) 4명에서 연주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에스윗'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연습하셨나요?

장원진 : 저(장원진)와 최영현은 08학번 동기이고 리더 여요한 07학번, 그리고 10학번 김수룡까지 함께 학교를 다녔습니다. 앙상블 수업을 들으면서 4명이 콰르텟 연주하기로 마음 먹고 함께 연주하기 시작한다는 2년가량 되었습니다. '에스윗'이라는 이름을 짓고 활동한지는 1년 남짓이지만 이전부터 'SNU 색소폰 콰르텟'으로 활동했었습니다.

Q. 곡 선정과 연습에 있어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여요한 : 장원진이 주로 운전, 최영현은 악보와 연락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원진 : 그렇지만 요즘에는 모든 일을 함께 하는 편이에요. 처음엔 역할을 나누곤 했는데, 오히려 서로 이야기가 잘 안되더라고요.

Q. 연습하면서 갈등이나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장원진 : 남자만 4명이다보니 오히려 주변에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갈등이나 싸움은 없는 편이고 티격태격하면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영현 : 마음이 서로 잘 맞아서 오히려 신기하기도 해요.

Q.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연주 시에 실수 때문에 짜릿하셨던 적이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장원진 : 연주할 때 실수는 워낙 많이 해요. 연주 상황이 매년 다르다보니 분위기에 자주 휩쓸릴 때도 있고요. 야외 연주뿐만 아니라 실내 연주에서도 대화하고 소통하는 식으로 진행하다보니 돌발 상황도 많고 예상치 못한 반응들 때문에 당황한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저희 끼리 대처하는 능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각자 반응도 여유로워졌죠.
최영현 : 학교 연주와는 또 다르게 서로 즐길 수 있는 분위기라 좋은 것 같습니다.

Q. 야외에서 연주를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장원진 : 사실 주변 소음이나 음향 문제들이 편하진 않은데 관객들의 분위기는 좋더라고요. 예전엔 고요하고 집중된 상태의 분위기를 원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편하게 같이 즐기는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런 편한 분위기를 저희도 같이 즐기니까 연주 자체의 분위기도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에스윗 색소폰콰르텟(S.with)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청순색소폰 콰르텟 팀이다. 에스윗(S.with)의 뜻은 S의 색소폰의 악자와 with의 함께 라는 뜻을 더해 색소폰과 함께 관객과 서로 소통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재즈악기로 인식되어있는 색소폰을 클래식 사운드로 해석하여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색소폰으로 각자 악기의 고유의 소리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앙상블을 지향하고 있다. 찾아가는 정기음악회, 하우스콘서트, 정기연주회, 외부초청연주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Q. 마지막으로 나에게 '에스윗'이란?

김수룡 : 나에게 에스윗은 피로회복제이다.
장원진 : 나에게 에스윗은 행운이다.
최영현 : 나에게 에스윗은 장편소설이다.
여요한 : 나에게 에스윗은 끊을 수 없는 MSG와 같다.

A delightful Saxophone Quartet_ Student Ensemble/S.with Quartet

Four saxophone players, alumni of the SNU College of Music, have been attempting persistently to popularize saxophone and music and communicate with the public with passion and ambition for music under the title of 'S.with'. Their repertoire is distinguished by its wide range of genres, from New Age, Jazz, Pops to film OSTs, and they are expected to have successful communication with more people through future stages.

음악을

| 생각하다
현대음악어법

이신우 교수

Thinking Music_ Modern Music Language / Prof. Shin-uh Lee

I visited Modern Music Language classroom, a graduate major course of the Department of Music Composition, lectured by Prof. Shinuh Lee. In this lecture, students are expected to hav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in musical works not only through formal and compositional technical aspects but through histomusicological significance and various aesthetical discussions as well. In addition, intensive understanding and work-specific significance and value of Modern music pieces may be obtained through active discussions and debates among professor and students.

푸르름이 무르익던 5월, 작곡과 이신우 교수님이 진행하는 "현대음악어법" 강의실을 찾았다. 현대음악어법은 대학원 전공 수업으로 15주에 걸쳐 20세기 중반 이후 작곡된 작품들의 특징과 음악어법에 대해 탐구한다. '음악어법'이라고는 하지만, 본 강의는 단순히 작품의 양식과 작곡 기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작품이 갖는 음악사적 의미와 다양한 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학적 논의를 통해 작품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는다. 이와 함께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님의 작곡가로서의 고민과 경험이 묻어나는 수업은 학생들 스스로가 음악작품에 대해 보다 폭넓게 고민하고 사유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있다.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작년 "스튜디오2021"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작곡가 구바이둘리나의 네 작품 〈Introitus〉, 〈Sieben Worte〉, 〈Quasi Hoquetus〉, 〈Offertorium〉을 중심으로 각각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면모를 살폈다. 전반적인 수업은 구바이둘리나의 작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한 사람의 작곡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경향과 함께 슈니트케, 루토스와프스키, 펜데레츠키를 비롯한 관련 작곡가들을 다룸으로써 학생들에게 폭넓은 음악적 이해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었다.

3시간에 걸친 밀도 높은 수업은 작품의 기보 방식, 악기의 사용, 소재, 텍스트, 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진행되었다. 특히 작품의 기법이 미술과 문학 등 다른 분야와 주고받은 영향을 함께 다룸으로써 다양한 각도의 접근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구바이둘리나의 작품 〈Sieben Worte〉가 피에타상과 샤갈의 그림과 맺고 있는 관계와, 칸트, 벤야민, 리오타르 등의 사상가에 기반한 작품에 대한 미학적 접근이 이색적이었다. 수강생 박종화(작곡전공 13) 학생은 이와 같이 수업을 통해 평소에 필요성을 느껴왔던 "인문학적 관점"에서 "음악에 대해 토론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이 수업 중에 악보를 펼쳐놓고 실제로 해당 작품을 감상하며 특정 기법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주고받는 것 또한 인상적이었다. 본 수업은 작곡과 대학원 전공 수업이지만 이번 학기에는 학부생은 물론이고 이론전공 학생들이 참여하여 보다 활발하고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교수님은 학생들의 의견에 정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라는 물음을 통해 학생들 각자의 관점을 이끌어내기를 독려했다. 그리고 이처럼 토론을 통해 수강생들 스스로가 작곡가의 의도를 발견하고 자신의 관점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수업의 중요한 목표였다. 강의를 수강한 임현신(작곡전공 11) 학생은 "주입식 교육을 벗어난 주도적 학습"을 본 강의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수업에서 "작품을 탐구하며 더욱 깊은 심미적, 정신적 측면을 깨닫고 스스로의 인식을 넓힐 수 있었다"며 수강 소감을 전했다.

이신우 교수님은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시간의 흐름을 견디고 살아남은 예술 작품" 속에 내재하는 "음악어법의 외양을 넘어 사람들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던지는 무언가"를 느끼고, 이에 대한 고민과 사유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찾아가기를 바랐다. 작곡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평소 현대음악 작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함께 작품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을 원하는 학생이라면 음악을 생각하는 본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박성우(음악대학 석사과정)



다
방
면
의,
그
리
고
새
로
운
이
경
선
교
수



7월 9일에 있었던 화음챔버오케스트라의 제 39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화음챔버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리더이신 이경선 교수님을 찾아뵙게 되었다.

예술의 전당 근처 한 자택에서 교수님을 만나 뵈 수 있었다. 솔리스트로서, 앙상블리더로서, 교육자로서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음악 감독으로서도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교수님께서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셨다.



Versatile, and New_

Prof. Kyoung-sun Lee

Having the 39th concert of the Hwaum Chamber Orchestra ahead, I went to visit Prof. Kyung-sun Lee, a principal violin of the Hwaum Chamber Orchestra. She currently is actively engaged in the field of music as a soloist, leader of an ensemble, educator as well as music director. She not only diligently pursue her own career but does not hesitate to spend her time and effort to instruct her students.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는 9일에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교수님께서 바이올린 리더로 계신 화음챔버오케스트라가 제 39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어떤 곡들을 다루게 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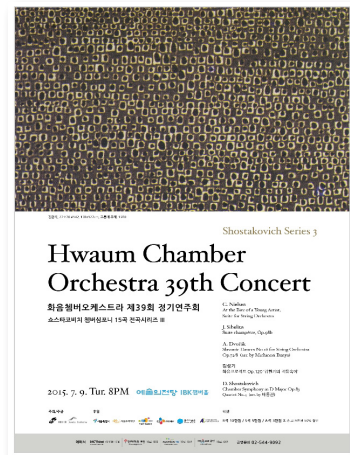
우리 화음챔버는 15곡이나 되는 쇼스타코비치 현악4중주를 챔버심포니 버전으로 편곡하여 정기연주회마다 한 곡씩 시리즈로 연주해오고 있어요. 오는 9일에는 4번을 연주하게 되었고요, 공연마다 한국 작곡가의 작품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김성기 작곡가의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며 준비한 닐슨과 시벨리우스의 곡들은 작년에 타계하신, 화음챔버오케스트라의 리더이셨던 故 백익환 교수님의 1주기를 맞아 그분을 추모하는 뜻에서 선택하게 된 곡들이에요. '젊은 예술가의 무덤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진, 닐슨의 상징적인 곡을 시작으로 죽음을 애도하는 시벨리우스의 곡을 연주 할 계획이에요. 그 밖에도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도 미치노리분야 선생님의 현악앙상블 편곡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곡을 특별히 시리즈로 다루면서, 현악 4중주의 곡을 관현악 버전으로 바꾸어 연주하고 계신데요,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사실 15개나 되는 쇼스타코비치의 현악 4중주곡들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몇 곡을 제외하고는 많이 연주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쇼스타코비치의 곡을 이렇게 연주하면서, 묻혀있는 곡을 세상에 좀 더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악 4중주곡들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챔버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연주함으로써 청중들로 하여금 더 쉽게 쇼스타코비치를 접하도록 하고, 현악기로만 연주할 때보다 좀 더 입체감이 있고 웅장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요. 마치 흑백 영화에 칼라를 입히는 것처럼 더 다양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편곡들의 성과가 상당히 좋았던 만큼 이번에 연주하는 4번은 배동진씨의 편곡을 통해 어떻게 재탄생하게 될지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음챔버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리더로서, 교수님께서 좋은 앙상블을 만들어내기 위해 리더들이 앙상블 속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앙상블에서 리더의 역할은 특히 지휘자가 없을 때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훌륭한 리더는 너무 튀어도 너무 약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독재적으로 자신의 뜻을 강요하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지요. 화음챔버오케스트라의 장점은 리더 그룹과 함께 멤버들이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공유하면서 민주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어떤 멤버들과 함께 연주하느냐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약간 변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리허설 중 서로 마음이 맞을 수 있고 비슷한 색깔을 가진 멤버들과 함께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즐거운 리허설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지휘자가 절실히 필요하기도 하지요.



교수님께서도 연주자로서, 교육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뿐만 아니라, 음악감독으로서, 심사위원으로서, 그리고 음악기획사의 예술고문으로서도 활동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면서 생기는 장단점 같은 것이 있을까요?

어릴 때 꿈꾸었던 희망은 단순히 '좋은 연주자나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 목표에 가까워지니 이게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부터는 제가 그동안 해오던 연주 활동 외에도 더 나아가서 내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나를 위한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환원할 수 있는, 보람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의 일환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대전 실내악음악축제 감독이라든지, 후배들과 제자들과 같이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또는 지방으로 내려가 어려운 환경에 접해있는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등 관심의 폭이 점점 넓어진다거나 할까요? 가끔 스케줄이 빡빡해지면서 몸이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제가 아직 젊을 때 소화할 수 있는 일들은 다해보고 싶답니다.

미래의 연주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이러한 점은 꼭 갖추었으면 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어릴 때 막연히 '나는 솔로이스트가 될 거야, 장영주처럼 될 거야!' 하고 공상을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충고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장영주는 정말 가뭄에 콩 나듯한 인물이예요. 우리는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분야에만 전념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해요. 누구든지 좋은 오케스트라 멤버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한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실내악에 몰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미래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두루두루 다방면으로 공부를 해놓는 것이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 또 자신의 장점을 남보다 일찍 개발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독주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등 여러 가지 장르의 곡들에 관심을 가질수록 더 원만한 음악가로 성장하는 것이지요. 제가 어릴 때는 무지해서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고, 나중에야 내가 너무 외골수로 공부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요즘 어린 학생들이 너무 입시 위주, 콩쿨 위주로 공부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답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그런 식

으로 몰고 가더라도 미리 미리 영양섭취를 골고루 해 놓는다면 결국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음악가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또 새롭게 도전하고 싶으신 일이나 계획 등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얼마 전부터 'SEOUL VIRTUOSI GROUP'을 만들어 크고 작은 음악회를 해오고 있어요. 이 그룹은 마음 맞는 후배들과 서울대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월에는 제가 5년째 감독을 맡고 있는 대전 실내악축제에서 이 그룹과 함께 공연을 하게 되어있고, 또 다같이 여름캠프를 계획하고 있기도 해요. 지난 5월에는 영비르투오지콩쿨을 통해 재능있는 어린 학생들을 선발하였는데, 저는 이런 학생들에게 올바른 멘토 역할을 하면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젊은 음악인들과 만남의 장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 프로젝트가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면서 삶의 동기가 되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서양음악이라 그런지 한국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인정받아도 대학 졸업 후 유학을 가면 외국인들에게 음악적으로 많이 뒤떨어진다는 평을 받고는 했어요.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하여 우리 음악계가 많은 발전을 하였고 지금은 세계 어디에서나 한국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뛰어난게 잘한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름을 달고 평생 살게 되는데 그 이름 덕분에 명예롭기도 하지만 그만큼 책임과 의무도 따른다고 봅니다.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서울대 입학이 인생의 목표 달성인 듯, 입학한 후에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는 학생들이 보이곤 합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만큼 그 이후에도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서, 졸업후에도 유학을 가든 안가든 우리가 가진 재능을 마음껏 꽃 피울 수 있어야 하며 주변 사람들까지 열매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재학 중 후회스런 일이 있다면 동아리 활동도 한번 못 해본 것이예요. 음대밖으로도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좋은 추억거리도 만들어놓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재산이 된다는 것을 몰랐답니다.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평생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친구들과 더불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유정(작곡과 이론전공 2학년)



서양음악연구소 토대연구 심포지움

한국을 듣다. Listen to Korea

지난 4월 25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서양음악연구소에서 주최한 세미나 「한국을 듣다」가 서울대학교 220동에서 개최되었다.

서양음악연구소는 2013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인문사회사업 중 토대연구 지원에 선정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 음악 관련 자료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목적 하에 질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문화권, 특히 독일어와 프랑스어권에서 형성된 한국의 음악적 이미지에 관련한 연구들에 대해 총 7명의 발표자가 설명하였다.

첫 번째로 신혜수 연구원은 '독일이 듣는 한국의 소리'라는 주제로 독일 언론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장직 연구원은 '오케스트라의 교류가 왜 중요한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오케스트라는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써 중요한 외교행사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문화외교의 관점에서 본 국내 교향악단의 유럽 순회공연'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 서의석 연구원은 '유럽 박물관의 한국 악기'관련 자료에 대해 압축하여 설명하였는데, 해외에 한국 악기를 소장한 박물관이 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 구석이 씁쓸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중앙일보 문화부의 김호정 기자는 '국제 콩쿠르의 한국 연주자들 - 분더킨트에서 콩쿠르쇼퍼 까지'라는 제목으로 외국에서의 한국 연주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하였다. 한국 연주자들의 위상은 국내의 분위기에 달려있음을 언급하고, 해외 콩쿠르에서 입상 시 연주자가 그 국가와 지속적인 교류를 가져야 할 것을 당부하며 발표를 마쳤다. 다섯 번째 원유선 연구원은 1980-90년대에 나타난 한국 음악가들의 해외 진출상을 음악잡지 '객석'을 토대로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프랑스와 독일로의 진출과 연주자들의 해외 콩쿨 입상 등을 통해 한국 연주자들의 해외진출상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명의 발표자는 모두 프랑스인 연구원으로, 프랑스의 청중에게 미친 한국음악에 대해 조사하였다.

경희대학교 기아메 브누아 교수는 '프랑스 청중에게 미친 K-pop의 영향과 한국문화의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에서의 K-pop의 보편화와 문화진파에 대해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마 바게 연구원은 대중음악 가수 PSY와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을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에 빗대어 설명하며, '지나치게 일방적인 방향의 문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음악가들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어느 때보다 해외에서 한국의 음악적 위상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독일어 및 프랑스어권에서의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 음악관련 자료를 발굴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토대연구를 통해 한국의 음악적 정체성과 영향력을 점검해나갈 서양음악연구소의 행보가 기대되는 바이다.



Listen to Korea Basic Research Symposium of Western Music Research Institute of SNU College of Music

On April 25th, a seminar 「Listening to Korea」 hosted by the Western Music Research Institute of the SNU College of Music was held in Bld. 220. Western Music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objective of 'excavating musical data and documents that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cultural image of Korea and constructing database', has been putting great efforts in constructing a highly qualified database. In this seminar, seven presenters had a presentation on the researches related to the musical image of Korea formed in foreign cultures, especially in German and French speaking countries. Through continuing basic research, Western Music Research Institute will examine identity and influence of Korea.

다성음악에 대한 단상 작곡과 최우정 교수

프랑스 남부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Marseille에서 6월 25일 택시 파업이 발생했다. 서둘렀건만 결국 공항버스는 공항입구 어딘가 도로변에 승객들을 내리게 했고 나를 포함한 승객들은 열심히 뛰거나 종종 걸음으로 터미널로 향했다. 결국 비행기를 놓쳤다. 비행편을 바꾸고 6시간 반이나 늦추어진 출발시간을 기다리며 공항 내 식당 안에 샌드위치를 말 그대로 입에 물고 앉아 있다. 눈을 감자마자 온갖 소리들이 밀려들어온다. 그 중 말소리들에만 집중해 본다. 당연히 주로 프랑스 말이지만 간간히 중국말을 비롯해 못 알아들을 언어들 역시 들려온다. 하지만 프랑스 말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우선 거칠게 나누자면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다 다르다. 각 개인적 상황의 디테일로 들어가면 더 차이가 날 것이다. 10초 정도를 잘라내어 계속 반복하여 들어보고 싶다.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 집에 가서 조용한 가운데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보면 차이들은 더 명확히 파악될 것이다. 억양, 색깔, 거리감, 속도, 크기, 모양새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성부들이 머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 그 중, 튀어나오는, 즉, 잘 들리는 단어들에 집중해 본다.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튀어나온, 밝거나 크거나 높거나 한 단어들과,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튀어나온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 보니 완전히 다른 문장이 만들어진다. 그 뿐인가? 단어가 아닌 음절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더 재밌는 현상이 벌어진다. 여러 다른 사람들의 말로부터 각각 잘 들리는 음절들을 골라내어 하나의 새로운 단어로 묶어내려 시도해 본다. 속도가 빨라 힘들지만 말이다. 거기에 웃음소리, 아이의 웅얼거림 등을 합치면 더 흥미로워진다. 갑자기 등장한 공항 안내방송은 단연 독립적으로 들린다. 승객들의 주의를 요하는 내용이어서 뿐이 아니다. 증폭되어서 뿐이 아니다. 일종의 만들어진 말이자, 다소 과장하자면 노래에 가깝기 때문이다.

어떤 한 단편이나 문장을 반복해서 읽어보자. 어느 순간부터 형식이 만들어지고 각 음절 및 단어들이 같은 음높이 주위에 서서히 정착할 것이며 리듬 패턴 역시 생길 것이다. 즉, 노래 비슷하게 될 것이다. 앞서 들어보려 했던, 잘라낸 10초 정도의 소리파일을 늘려보면 더 재미있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일상 언어들은 각 음절을 늘리면, 혹은 정지시키면, 노래가 된다. 경험된 어떤 것을 정지시키고 반복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술로 들어서는 문턱이 아닐까?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술가의 본격적인 직무가 시작되는 것 아닐까?

경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창조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대개 예술가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다. 그러나 동일하게 보이는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세부로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경험이지만 다른. 이 역설 덕분에 예술가들에게 일거리가 생기는 것 아닐까? 같지만, 혹은 평범하고 일상적이지만, 세부로 들어가면 다르고 특별하기만 한 그 경험의 세계로 다른 이들을 인도하고 거기서 여러 다른 진실들, 다른 아름다움들을 발견하게 하는 게 예술가들의 일 아닐까?

공감대란 이러한 일을 통해 얻는 게 아닐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단 하나로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어떤 이상적인 목표나 신념, 그리고 성공, 명예 등의 개인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대신, 주변에 존재하는 세계와 열린 태도로 계속 소통하며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인가 값진 것을 발견해 내기 위해 늘 바둥거리는 모습은 어떨까? 과연 나의 모습은? 나의 예술적 피부는 늘 과감히 무지카 문디에 노출되어 있는가? 혹시 지위, 신념, 체면, 권력 등을 버무려 만든 최상급 강력 프로텍션 크림으로 근사하게 보호받고 있지는 않을까?

Composing a single piece of music with innumerable kinds of sounds in the world, voices, or 'dots' you heard, and living a life that sublimates such into a form of art is called polyphonic life. And the people who are engaged in music or art are those who are given the power to make the ordinaries around us special- they emphasize that you give heed to their voice and callings.



다성음악의 핵심은 Punctus contra punctum, 즉, 점 대 점이다. 기본적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동등한 두 성부, 아니 그 전에 “점”으로 상징화할 수 있는 두 개체가 출발점이다. 우리 음대에서 공부하고 연주하고 가르치는 음악들은 대개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사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던가. 나란 존재 역시 하나의 점, 또는 성부일 수 있고 내 주위에 여러 다른 점 또는 성부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음악인들의 삶은 이런 상황에 더 본격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성부를, 다른 악기를 들어야 한다. 심지어 독주 악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관객이 존재하는 것이고, 만일 관객이 없다면, 연주하는 나 자신을 보고 있는 또다른 나 자신, 그렇다면 음악하는 사람들이란 우선, 듣는 사람들 아닐까? 말하는 것보다는, 표현하는 것보다는 듣는 게 오히려 음악의 시작이 아닐까?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말하기 바쁘고 학생들은 서로 스크린을 두드려대기 바쁜 세상에서 과연 ‘들음’이란 존재할까? 만일 그렇다면 대답한다면, 그건 무엇을 듣는다는 뜻일까? 만일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우리 입으로부터 빠져나간 바로 직전 10초를 정지시켜 잘라내어 반복시키며 우리의 말은 물론이거니와 그 순간순간에 들어 있는 우리의 말 이외의 다른 소리들을 들어 본 경험이 있었는가? 과연 소리로, 성부로 가득찬 세상을 누구보다도 성실히 듣고 그를 통해 또다른 소리의 세상을 고통 끝에 창조해 낸 자신들의 작품을 연주하고 듣고 가르치고 공부하는 우리들을 작곡가들이 본다면 자신들의 음악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할까? 만일, 요즘 주변에서 흔히 말하듯이, 우리, 즉 음악인들이 자신의 명예와 신념과 안위와 권력을 향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연주하고 듣고 가르치고 공부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음악이란 무엇일까? 음악사를 다시 들여다보며 느끼는 것은, 절대로 작품의 깊은 속, 즉 작곡가의 영혼은, 자신만이 “바로 그” 성부이며 “주요” 성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쉽사리 자신을 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설령 외형상 다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작품에까지도 그들이 조직해 놓은 다성적 텍스처는 세상을, 삶을, 자신을 다성적으로 인식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작곡가의 영혼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뻑뻑한 거미줄이자 그물망에 불과하다.

많은 음악 작품들은, 쉽사리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성부들로 가득하다. 몇몇 거장들은 전혀 예상도 못한 그런 성부들의 조직을 이끌어 내기에 단순한 소위 천재들 위에 우뚝 선다. 그런 성부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 내어 각각 철저히 잘 다듬어 또다른, 상상도 못할 새로운 네트워크 공간을 만들어 내는 위대한 연주를 간혹 만난 적이 있다. 작곡가의 영혼이란 그 공간을 창조하는 다성적 조직의 미세한 결들에 깃들어 있다는 말이 단지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사람은 알 것이다. 그건 음악적인 실체이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는 일은 들음으로써 시작되지 결코 말하거나 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불러서 되는 게 아니다.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반복해서 여러 번 들어야 한다. 단지 음악 뿐 아니라 사람도, 세상도 말이다.

오래 전에 잃어버려 집에 없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물건을 다시 찾아본 경험이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값진 선물을 받아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공부하고 연주하는 음악 작품들 내부의 겹겹으로 쌓인 층들에 아직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나아가 세상에는 음악으로, 예술작품으로 재구성, 재조직되어 또다른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길 바라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실로 무궁무진하다면? 무엇이 어떤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 재능? 지위? 명성? 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란 “특별한 재능”보다는 요컨대 ‘특별하게 하는 힘’을 받은 사람들 아닐까? 그리고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 주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리, “성부”, “점”들을 듣고 들어 하나의 음악으로, 예술로 다듬어 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다성적 삶이라고 해 본다. 거기에 비로소 진정한 조화가 있지 않을까? 마치 각 성부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모니를 이루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수많은 작품들처럼. 음악예술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란, 자신의 재능이나 이야기 및 이미지, 혹은 어떤 단순한 “감동”, “아름다움” 등등의 것들이 아닌, 바로 “다성적 삶”이 가능함을,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과 함께 설득력 있게 전해주는 것 아닐까?

어느 새 몇 시간이 훌쩍 가 버렸다. 안내방송이 계속하여 들려온다. 시간이 갈수록 안내방송에 더욱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 외의 다른 소리들은 문혀 버리고 혹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를 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서둘러 카운터를 향하는 종종 걸음만 남는다.

Giver ; For me, it was hearing beyond.

나한테 그건 들리는 것 너머를 듣는 거야.

Jonas ; What did you hear?

뭘 들으셨는데요?

Giver ; Music.. I began to hear something truly remarkable, and it is called music.

음악... 난 정말로 놀라운 걸 듣기 시작했어. 그걸 음악이라고 하지.

육아에만 집중하던 시절, 어쩌다 한 번씩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해 주는 소설 책에 몰입하여 감동받는 것이 생활의 큰 즐거움 중 하나였다. 특히 아동소설이나 청소년 소설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는데 거기서 얻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나 새로운 간접경험은 '아이들이 읽는 장르' 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니었다.

영어로 쓰인 이 책은 '기억전달자' 라는 제목의 우리말 번역본도 있고 2014년 메릴 스트립이 출연한 '더 기버' 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된 작품이다.

Book Review : Da-Woon Jeong

'The Giver' is a story of a boy named Jonas who lives in an utopian society that is under extreme control by 'the Elders'. Jonas was acknowledged of his ability to 'See beyond', the boy absorbs memories that induce for the first time feelings of true happiness and love as well as other forms of emotions from the Receiver, the one and only person who retains the memories of the Community's past. As he received more of the past, he started to question and doubt the current community. In the last scene, Jonas finally experience music. Jonas's progress from 'seeing beyond' to 'hearing beyond' to proceed to the pinnacle implies the prestigious status of music.

주인공 조너스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이상적인 사회' 에 살고 있다. 이 사회에서는 갈등, 차별, 불편함 등 사회의 문제점으로 작용할 만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사회의 구석구석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사고, 갈등, 예기치 못한 일등이 결코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일들은 사전에 철저히 컨트롤 된다.

그 한 예로 이 사회에는 위험하고 운송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덕이 없다. 농사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교통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눈도 내리지 않게 날씨를 통제했다. 그 커뮤니티 안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의 위험 때문에 자동차도 필요 없다. 출생, 양육, 직업선택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커뮤니티안의 위원회가 개입한다.

출산부를 통해 태어난 아기들은 한 가정 당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로 배정된다. 아기들은 발달단계에 맞게 장난감, 의복 등을 지급받는다. (당시 아기가 어렸던 나는 이 부분이 경악스러웠다. 똑같은 옷과 똑같은 장난감을 부여받은 아이들이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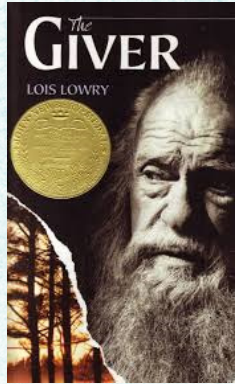
각 개인은 12살이 되면 그간의 개인의 능력과 취향, 특성을 면밀히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지정해 준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 지나친 표현이나 모호한 말을 쓸 수 없으며 규칙을 어겼을 때는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규칙을 세 번 이상 어기거나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신생아가 계속 우는 것처럼 사회적 부적응이 계속 될 때 그리고 늙어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들은 모두 'release'(임무해제)된다.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는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다.(나중에 조너스는 이 'release'라는 것이 주사를 놓아서 안락사 시키는 것임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이 사회에서 선택은 위험한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일률적이어야 한다.

The Giver

Lois Lowry, 1993,
Random House Children's Books



영화
The Giver
기억전달자 (2014)

주인공 조너스는 12살이 되어 직업을 배정받게 된다. 그는 사물 너머로 보는 능력(seeing beyond)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사회의 유일한 'Receiver of Memory'로 임명된다. 'Receiver'는 그 사회에서 유일하게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Giver'에게 기억을 전달 받으며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삶의 진실과 고통의 의미 등에 대해 눈 떠가게 된다. 조너스가 기억전달자에게 기억을 전수받게 되면서 책의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가 해소되기 시작한다. 조너스는 그에게 추운 겨울에 썰매가 언덕에서 내려오는 경험을 전달받게 된다. 그리고 썰매가 언덕에 부딪히며 다치는 경험을 시작으로 극심한 고통, 피, 굶주림, 전쟁, 공포 등을 경험을 전달받는다. 통제된 이상사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다.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 휴일, 행복, 사랑 등도 'Giver'를 통해 경험했다. 사랑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전달받은 조너스는 집에 가서 엄마에게 묻는다. "Do you love me?" 엄마의 대답은 "Our community can't function smoothly if people don't use precise language. (사람들이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You could ask, 'Do you enjoy me?' or 'Do you take pride in my accomplishment?'" (이렇게 물어야지. "엄마는 나랑 있는 게 즐거우세요?" 혹은 "내가 해 놓은 일들이 자랑스러우세요?")이었고 조너스는 더 이상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자기 집에 새로 배정된 갓난아기가 밤에 자지 않고 계속 울기 때문에 곧 'release' 될 것이란 소식을 듣고 아기를 데리고 그 사회를 탈출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조너스는 통제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선택'을 한 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커뮤니티를 탈출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그동안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굶주림, 추위,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그 사회에 계속 있었더라면 다른 것들로, 즉 감정과 색깔과 사랑 이런 삶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 굶주렸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인생에서 선택으로 야기될 수 있는 실수와 시행착오, 예기치 않은 고통,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삶의 중요한 부분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예술의 의미에 대해서도 되새겨 볼 수 있었다. 'practical'한 것에만 몰두하는 사회는 천박하고 잔인해 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법은 예술이 가진 'beyond'의 능력이다. 극도의 실용성, 안정성과 효율을 지향하는 이 사회에는 문학과 예술이 없다. 과학과 테크놀로지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Giver'는 망설임 없이 "They know nothing." 이라고 내뱉는다. 또한 차별의 요소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색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회에서 조너스는 어느 날 갑자기 색깔을 인식하게 되고 혼란에 빠진다. 모든 것이 흑백인 사회에서 그는 색을 볼 줄 아는, 'see beyond'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시각적인 'beyond'의 능력은 사고와 감정과 자율성을 공포 묶어버린 사회의 참담함을 인식하게 해주는 시발점이 된다. Giver를 통해 삶의 다양한 고통과 의미를 경험하게 되면서 주인공은 글의 첫머리에 인용한 문장처럼 Giver를 통해 'hear beyond'하는 음악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듣게 된다. 굶주림에 지친 조너스가 마지막 장면에서 아기와 함께 실제로 눈 덮인 언덕을 내려오는 경험은 죽음을 맞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그는 드디어 음악을 경험한다. 그 마지막은 이렇다. "For the first time, he heard something that he knew to be music. He heard people singing(조너스는 처음으로 자기가 음악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것을 들었다.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see beyond'의 능력으로 시작된 삶에 대한 의미 있는 깊은 인식과 경험은 청각적인 'beyond'의 능력으로 정점을 찍게 된다. 'hear beyond'가 궁극의 지점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음악의 위상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해준다. 이런 'hear beyond'를 추구하고 설명하는 것이 음악인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정다운(음악학 석사과정)

New England 지부 동창회장 장수인 선배님 뉴잉글랜드에 올려퍼진 '평화콘서트'



장수인 New England 지부 동창회장(음76)이 대표, 단장으로 있는 화음보스톤챔버와 보스톤한인합창단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5월의 멋진 '평화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5월 16일 렉싱턴, MA에서 열린 평화콘서트에는 엄성준 총영사 내외를 비롯 많은 동문들과 지역 한인들이 모여 아름다운 감동을 나누었다.

1부에는 화음보스톤챔버의 모짜르트와 차이코프스키 세레나데가 연주되고 2부에는 각계각층의 보스톤지역 한인과 8명의 성악인들이 모여 열심히 준비한 합창곡들이 챔버와 함께 연주되어 웅장함을 더했다.

화음보스톤챔버단원으로는 김현정(음02), 최혜민(음02), 박예나(음10), 이해민(음08), 정현지(음08), 합창단의 솔리스트로는 테너 강정래(음79), 소프라노 이상원(음89), 이재형(공91:기획) 등 많은 서울대 동문들이 함께 연주했다.

레퍼토리는는 최상의 수준을 보여준 슈베르트 Mass와 뒤이은 한국 곡들이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차례로 연주되었다.

장수인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쁨은 함께 나눌수록 배가되고 슬픔은 나눌 때 큰 위안과 위로를 받는다'며 아름다운 미래를 기원하는 평화콘서트의 의미를 되새겼다.

Healing Song 메들리로 준비된 한국곡들 중 무반주의 고향의 봄합창은 모든 이들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심에 젖게 하였고 '아침이슬', '사랑으로' 등의 남성중창, 합창을 들을 때는 우리의 학창시절 추억에 젖어들었다. 특별히 세월호 1년 추모곡인 '내영혼 바람되어(천개의 바람)'는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내며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다. 이 곡은 작곡가 김효근 교수가 보스톤의 평화콘서트에 특별히 헌정하여 연주되었다. 마지막은 당연히 아리랑이 열창되었다.

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 웅장하게 연주된 아리랑을 관객들이 함께 따라부르며 아름답고 평화로운 미래로의 염원을 나누었다.

이 음악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화음보스톤챔버가 주최하는 한반도시리즈 콘서트 중, 3월의 '위대한 한민족'에 이어진 두번째 5월 행사이고,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아름다운 미래로'의 연주가 기획되어 있다.

"The Peace Concert", New England is filled with the beautiful sounds.

The Peace Concert was held by Hwaum Boston Chamber and Boston Korean Chorus that Chang Soo-ihn. leads. Serenades of Mozart and Tchaikovsky and a few pieces for choruses was performed in the concert. Audiences broke into rapturous applause.

융합과학기술대학원 BK조교수 이경면 선배님

‘음악하는 뇌’를 들여다보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렇게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광고에 있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BK 조교수로 있는 이경면입니다. 정확하게는 BK21 플러스 스마트 휴머니티 사업단 소속입니다.

음악대학 소속이 아닌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하 융대원) 소속 교수님이신데, 현재 융대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연구가 주 업무이며 학생들의 논문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듬에 대한 신경과학적 연구 프로젝트를 학생 연구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음악에 대한 리듬감을 뇌파로 측정하고, 측정된 리듬감이 말소리에 존재하는 소리의 규칙성을 처리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리듬의 인지적 기능에 관한 뇌과학적 연구이죠.

선화예고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주가 아닌 음악신경과학이라는 연구의 길로 들어선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피아노를 전공했지만 적성에 잘 맞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오히려 생물, 수학, 화학과 같은 과목에 관심이 많았죠. 그러던 중, 작곡 이론 전공에 입학하여 음악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어릴 때부터 해왔던 음악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부해보니 무척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는데, 박사 과정으로 유학 간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음악과 신경과학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말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음악 신경과학은 어떤 분야이며, 어떤식으로 연구가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음악신경과학은 음악을 듣고 이해하고 연주하는 ‘뇌’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 뿌리는 음악심리학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음악을 연구하는 학문은 음악 자체, 작품을 연구하지만 음악심리학은 음악을 듣고, 즐기고 연주하는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초기에는 심리학의 전통적인 연구방법인 행동 실험을 통해 이를 연구했지만, 최근 뇌과학의 발전으로 음악을 듣고 즐기고 이해하는 과정을 뇌를 통해 설명하게 되었죠.

흥미롭지만 어렵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공부하실 때 어려웠던 점 혹은 기억에 남는 재밌는 일화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지금 기억에 남는 경험은 신경과학 수업에서 교양이 뇌를 직접 처음 해부했을 때의 충격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 밖에 항상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고 실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들이 힘들기도 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모집한 학생 참가자들은 대부분 열심히 실험에 참여해 주었지만, 인터넷으로 모집한 외부인의 경우 뇌파를 측정하는 부스에서 깊이 잠들어있어 당황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여성 과학자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표되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처음 연구 책임자로 지원하는 사업이었고 경쟁률도 매우 높다고 들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는데 선정되어 매우 기뻐합니다. 내가 계획한 연구를 마음껏 실행해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 뿌듯했지만,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도 무거웠습니다.

여성과학자로서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라 말도 통하고, 엄마가 하는 일을 조금은(?) 이해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처음 낳아서 엄마라는 역할에 많이 익숙하지 않았을 때(물론 지금도 그렇지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고 응원해주셔서 그 시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엄마와 연구자라는 두 가지 역할 사이에서 늘 고민합니다.

끝으로 음악신경과학이라는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앗, 이 답이 가장 어렵네요(웃음).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분야라서 생소하기도 하지만, 그 만큼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고, 또 앞으로 뇌과학의 발전과 함께 더욱 가능성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음악관련 융합적 학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우아 (음악학 석사과정)

Peeking into the 'Musicking Brain' -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BK Assistant Professor Kyung-myun Lee

I went to go visit Ms. Kyung-myun Lee, an alumna of the SNU College of Music, who is working as a BK Assistant Professor of the SNU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Science and Technology located in Gwanggyo. She majored in piano in high school and went abroad to the US to study music and neuroscience. Currently, she is working on a neuroscientific research project on rhythm in GSCST. I expect to see remarkabl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in neuromusicology, which will advance more along with the expansion of neuroscience.

2015학년도 1학기 콩쿠르 입상자

성악과

성악	이혜진(12)	2015 서울벨베데레 콩쿠르 2위
	길병민(13)	제 41회 중앙음악콩쿠르 성악 남자 2위
	장연주(13)	제 20회 음악춘추콩쿠르 성악부문 여자대학부 1위
	장연주(13)	제 64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 성악부문 여자 대학 · 일반부 1위
	신소연(13)	음악춘추콩쿨 대학여자 2위
	신소연(13)	이화경향콩쿨 대학여자 3위
	박혜숙(14)	제 26회 슈베르트콩쿠르 대학 · 일반부 1위
	민한별(14)	제 50회 음악교육신문사콩쿠르 2위
	박기훈(14)	2015 서울 벨베데레 콩쿠르 1위
	김종화(석)	2015 T&B 국제 아티스트 콩쿠르 대학 · 일반부 1위

국악과

거문고	문 숙(14)	제 35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거문고부문 금상
	정하은(14)	제 35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거문고부문 동상
	문현진(13)	제 31회 동아음악콩쿠르 일반부 거문고부문 동상
가야금	장예은(14)	제 25회 김해전국가야금대회 대학부 대상
	선찬주(12)	제 25회 김해전국가야금대회 대학부 최우수상
	김다혜(11)	제 25회 김해전국가야금대회 대학부 우수상
	정나영(13)	제 25회 김해전국가야금대회 대학부 은상
	조은결(석)	제 25회 김해전국가야금대회 일반부 금상
	공유림(07)	제 13회 구례전국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대상(대통령상)
	이서영(11)	제 13회 구례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산조부문 은상
	천진희(석)	제 13회 구례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창작부문 동상
	추현탁(12)	제 31회 동아음악콩쿠르 일반부 가야금부문 금상
	대금	박명규(10)
박병재(14)		제 31회 동아음악콩쿠르 일반부 대금부문 동상 제 4회 영암김창조전국국악대전 일반부 관악부문 최우수상
심현리(13)		제 12회 전국대금경연대회 금상
판소리	신유진(12)	제 35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판소리부문 동상
	정수인(박)	제 4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
	고준석(11)	제 4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일반부 장원
정가	장명서(13)	제 31회 동아음악콩쿠르 일반부 정가부문 금상
피리	차승현(14)	제 35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피리부문 금상
아쟁	김예지나(14)	제 35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아쟁부문 동상
	임도경(13)	제 4회 영암김창조전국국악대전 일반부 현악부문 최우수상
	이서영(11)	제 4회 영암김창조전국국악대전 일반부 관악부문 우수상
	정삼수(15)	제 35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대상
	정누리(박)	제 41회 전국난계경연대회 대상(대통령상)
	김 철(00)	제 41회 전국난계경연대회 일반부 2위
	김빛나(석)	제 42회 춘향국악대전 기악현악병창 일반부 대상
	심현리(13)	제 42회 춘향국악대전 기악관악 일반부 우수상

Brovi! Prize Winner

박지현(14)	제 42회 춘향국악대전 기악현악병창 일반부 장려상
박명규(10)	제 25회 KBS국악대경연 관악전통부문 장원
박다울(11)	제 25회 KBS국악대경연 현악전통부문 장원
김대운(12)	제 25회 KBS국악대경연 성악부문 장원
이민영(석)	제 25회 KBS국악대경연 현악협주부문 장원

기악과

피아노	이민성(석)	제 61회 마리아카날스 국제콩쿠르 2위
	우용기(14)	제 41회 중앙음악콩쿠르 1위 없는 2위
	원영아(11)	제 11회 Concours International de Piano Teresa Liacuna de Valence 2위
	박연민(석)	2015 The 1 st Korea-Asia Piano Open Competition 1위
	최영선(13)	(사)한국음악협회 제 34회 해외파견콩쿠르 3위
	이보라(13)	제 45회 SAMIK-SEILER콩쿠르 대학일반부 1위
	최형록(12)	제 3회 아시아 태평양 국제쇼팽 피아노 콩쿠르 3위
	이재영(14)	2015 The 1st Korea-Asia Piano Open Competition 2위
	김미지(15)	2015 제 32회 부산 음악 콩쿠르 피아노 부문 2위
	오연택(12)	Piano del Cavalier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1위없는 2위, Concours International de Piano de Lyon 3위 및 2개의 특별상
색소폰	박연민(석)	The Pnina Salzman Memorial Prize in 2015 Tel Hai International Piano Masterclasses
	윤정현(14)	Tel Hai International Piano Masterclasses The concerto competition 1st Prize
튜바	김수룡(10)	(사)한국음악협회 제 34회 해외파견콩쿠르 3위
오보에	이찬영(08)	부산MBC 제 32회 부산음악콩쿠르 3위
트롬본	임현애(13)	(사)한국음악협회 제 34회 해외파견콩쿠르 1위
트럼펫	최유덕(11)	수원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합격
호른	안석영(학)	2015 제 10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트럼펫 부문 2위
바이올린	고영중(14)	2015 제 10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호른 부문 1위 없는 2위
하프	장운선(14)	2015 제 32회 부산 음악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3위
첼로	이우진(15)	2015 대한민국 국제 하프 콩쿠르(2015 Korea International Harp Competition) 5위
	박주호(15)	중앙콩쿠르 2위
더블베이스	김효정(15)	서울 바로크 합주단 콩쿠르 첼로 부문 3위
	김은선(석)	(사)한국음악협회 제 34회 해외파견콩쿠르 3위
클래식기타	남한나(13)	서울 바로크 합주단 콩쿠르 더블베이스 부문 대학부 1위
	신주현(11)	베누스토 서울시장배 전국 음악콩쿠르 1위
타악		Universal Marimba competition in Belgium(벨기에 마림바 국제 콩쿠르)
		Laureate and First Prize winner Marimba Solo 1위
	박지혜(10)	Public Prize Marimba Solo(대중상)
		Sabam Prize Best Performance of the Set Concerto Marimba Solo(2015 베스트 퍼포먼스상) Recording Prize Marimba Solo(녹음상)

작곡과

작 곡	오정웅(석)	제 38회 창악회 작곡콩쿠르 우수상
	이성현(14)	제 25회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입선

발전기금출연자 명단

(단위 : 원)

출연자명	기금용도	기금명	납입금액	납입일자
김봉규	위임		500,000	2015.01.21
이용근	학술	장학	500,000	2015.01.21
재단법인 이운형문화재단	학술	이운형문화재단발전기금	30,000,000	2015.01.23
재단법인 이운형문화재단	학술	이운형문화재단발전기금	40,000,000	2015.01.23
김우진	위임		100,000	2015.01.26
송경희	학술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100,000	2015.01.26
김미영	시설물		100,000	2015.01.27
김우진	학술	이론전공 장학금	200,000	2015.01.27
이성복	위임		1,000,000	2015.01.27
장미희	위임		100,000	2015.01.27
후원자00414	위임		100,000	2015.01.27
한유경	위임		100,000	2015.01.30
이성초	학술	이론전공 장학금	500,000	2015.02.09
박미혜	학술	태리 장학금	500,000	2015.02.11
풍강산업(주)	위임		100,000	2015.02.12
김규동	학술		50,000	2015.02.17
이돈응	위임		100,000	2015.02.17
이신우	위임		50,000	2015.02.17
최경환	시설물	관악전공기금	100,000	2015.02.17
김우진	위임		100,000	2015.02.25
송경희	학술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100,000	2015.02.25
김미영	시설물		100,000	2015.02.26
김우진	학술	이론전공 장학금	200,000	2015.02.26
장미희	위임		100,000	2015.02.26
후원자00414	위임		100,000	2015.02.26
후원자00416	위임		1,000,000	2015.03.02
최희연	학술	피아노과 장학금	1,000,000	2015.03.07
박미혜	학술	태리 장학금	500,000	2015.03.11
후원자00415	위임		200,000	2015.03.11
후원자00417	위임		500,000	2015.03.12
익명	위임		1,000,000	2015.03.13
최규선	학술	음악대학 프렌즈기금	1,000,000	2015.03.13
풍강산업(주)	위임		100,000	2015.03.13
익명	학술	이론전공 장학금	1,000,000	2015.03.16
김규동	학술		50,000	2015.03.17
이돈응	위임		100,000	2015.03.17
이상규	학술	이론전공 장학금	500,000	2015.03.17
이신우	위임		50,000	2015.03.17
최경환	시설물	관악전공기금	100,000	2015.03.17
인송문화재단	학술	장학	6,000,000	2015.03.23
김우진	위임		100,000	2015.03.25
송경희	학술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100,000	2015.03.25
김미영	시설물		100,000	2015.03.26
김우진	학술	이론전공 장학금	200,000	2015.03.26
장미희	위임		100,000	2015.03.26
후원자00415	위임		100,000	2015.03.26
허익수	위임		500,000	2015.03.31
김승근	위임		2,000,000	215.04.01
허익수	위임		300,000	2015.04.10
박미혜	학술	태리 장학금	500,000	2015.04.13
풍강산업(주)	위임		100,000	2015.04.15
김규동	학술		50,000	2015.04.17
신수정	위임	음악대학 도서관 신축 기금	10,000,000	2015.04.17
양경숙	학술	해금전공 장학금	300,000	2015.04.17
이돈응	위임		100,000	2015.04.17
이신우	위임		50,000	2015.04.17

(단위 : 원)

출연자명	기금용도	기금명	납입금액	납입일자
최경환	시설물	관악전공기금	100,000	2015.04.17
김귀현	위임	음악대학 도서관 신축 기금	10,000,000	2015.04.23
송경희	학술	해금전공 장학금	100,000	2015.04.27
김미영	시설물		100,000	2015.04.28
김우진	학술	이론전공 장학금	200,000	2015.04.28
장미희	위임		100,000	2015.04.28
후원자00414	위임		100,000	2015.04.28
후원자00415	위임		100,000	2015.04.28
후원자00429	위임		50,000,000	2015.04.28
후원자00417	위임		500,000	2015.05.11
박미혜	학술	태리 장학금	500,000	2015.05.12
기악과 피아노 전공교수일동	위임	피아노과 전공위임 기금	37,700,000	2015.05.14
풍강산업(주)	위임		100,000	2015.05.14
김규동	학술		50,000	2015.05.15
양경숙	학술	해금전공 장학금	300,000	2015.05.15
이돈응	위임		100,000	2015.05.15
이신우	위임		50,000	2015.05.15
최경환	시설물	관악전공기금	100,000	2015.05.15
송경희	학술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100,000	2015.05.26
김미영	시설물		100,000	2015.05.27
김우진	학술	이론전공 장학금	200,000	2015.05.27
장미희	위임		100,000	2015.05.27
후원자00414	위임		100,000	2015.05.27
후원자00415	위임		100,000	2015.05.27
박미혜	학술	태리 장학금	500,000	2015.06.11
강선하	학술	이론전공 장학금	500,000	2015.06.12
주윤정	위임		500,000	2015.06.12
후원자00417	위임		500,000	2015.06.12
풍강산업(주)	위임		100,000	2015.06.15
김경아	위임		2,000,000	2015.06.17
김규동	학술		50,000	2015.06.17
양경숙	학술	해금전공 장학금	300,000	2015.06.17
이돈응	위임		100,000	2015.06.17
이신우	위임		50,000	2015.06.17
이지영	학술	가야금 발전 장학금	100,000	2015.06.17
최경환	시설물	관악전공기금	100,000	2015.06.17
문양숙	학술	가야금 발전 장학금	500,000	2015.06.18
차재호	위임		500,000	2015.06.18
송경희	학술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100,000	2015.06.25
김미영	시설물		100,000	2015.06.26
김우진	학술	이론전공 장학금	200,000	2015.06.26
장미희	위임		100,000	2015.06.26
후원자00414	위임		100,000	2015.06.26
후원자00415	위임		100,000	2015.06.26
Aviram Reichert	학술	피아노전공기금	1,000,000	2015.06.29
송정민	학술	가야금 발전 장학금	100,000	2015.07.03
주희성	위임	음악대학 도서관 신축기금	2,000,000	2015.07.07
박미혜	학술	태리 장학금	500,000	2015.07.13
심새미	학술		50,000	2015.07.13
풍강산업(주)	위임		100,000	2015.07.13
후원자00417	위임		500,000	2015.07.13

발전기금 참여안내

●무통장입금 (예금주 : 서울대발전기금) ●농협 079-17-000136 ●신한 100-014-328209 ●우리 1006-601-280134

* 신용카드, 자동이체(CMS), 지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 합니다. * 유증 및 부동산 등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 기타 문의는 서울대학교발전기금(02-880-8004)으로 연락 주십시오.

성악과 Department of Vocal Music

박미혜 교수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된 '세계가곡의 향연'에서 공연

Prof. Park, Mi-Hae, performed at 'A Feast of World Classical Song' held at the Opera House of the Seoul Arts Center.

소프라노 박미혜 교수는 2015년 4월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된 "세계가곡의 향연"에 출연하여 성공적으로 공연을 하였다. 연주자로서의 활동은 물론이고, 올해부터 오페라 연구소 소장직을 맡아 연구소의 발전에 힘쓰고 있다. 4월에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성악과장인 바리톤 Peter Edelmann과 Sylvia Edelmann을 초청하여 오디션에 관한 세미나와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였고, 5월에는 국제 매니저이자 코치인 Kevin Alan Park 선생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번달 중순부터는 10월에 있을 서울대학교 정기오페라 "Die Zaubertöte"의 예술총감독으로 학생들 지도하고 있다.

서혜연 교수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교류 50주년 기념음악회에 출연

Prof. Seo, Hye-Yeon, performed at the 5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Normalization of Korea and Japan Commemoration Concert held in Tokyo, Japan.

서혜연 교수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교류 50주년 기념음악회(2015. 3. 18.~21)에 출연하였다. 또한, 제 85회 춘향제(2015. 5. 22~25) 제전 위원회 프로그래머, '위대한 세기의 사랑가' 음악회에서 기획, 예술감독을 맡았다. 2015 평창 스페셜 뮤직 페스티벌(2015. 8. 7~11) 조직위원회(조직위원) 및 평창스페셜 뮤직 페스티벌에서 운영감독으로 있으며, 성악멘토교수로도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연광철 교수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오페라 '발퀴레' 중 훈딩 역,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에서 달란트 역을 담당

Prof. Youn, Kwang Chul, played as "Hunding" in the opera "Die Walküre" and "Daland" in "Der fliegende Holländer" at Bayreuther Festspiele, Germany.

베이스 연광철 교수는 3월 말에 몬테 카를로에서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독창회를, 4월 초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오페라 '탄호이저' 중 헤르만 역을, 4월 중순에는 일본 도쿄에서 NHK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였고 이어 오스트리아 빈에서 푸치니 '미사 글로리아'를 연주하였다. 현재는 바그너 음악 축제인 독일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오페라 '발퀴레' 중 훈딩 역을,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에서 달란트 역을 담당하고 있다.

전승현 교수

독일과 프랑스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마르케 왕', '발터 백작' 역으로 공연

Prof. Attila Jun, played as "King Marke" and "Count Walter" at the National Opera House of France and Germany

베이스 전승현 교수는 2015년 3월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R. Wagner의 오페라 "Tristan und Isolde"에 "마르케 왕"역으로 공연했다. 또한, 5월에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A. Brucker의 "Te Deum"에 베이스 솔리스트로 공연하였고, 6월에는 같은 장소인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G. Verdi의 오페라 "Luisa Miller"에 "발터 백작"역으로 공연하였다.

7월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예술의 전당 주최 W. A. Mozart의 오페라 "Die Zaubertöte"에 "자라스트로"역으로 출연 예정이다.

이용훈교수

G. Verdi의 "Il Trovatore"와 G. Bizet의 "Carmen"에서 공연

Prof. Yong Hoon, Lee, performed in G. Verdi's "Il Trovatore" and G. Bizet's "Carmen"

테너 이용훈 교수는 2015년 들어서 독일 뮌헨 국립극장에서 G. Verdi 작품인 "Il Trovatore"에서 Manrico역,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에서는 G. Bizet 의 "Carmen"의 Don Jose역 그리고 G. Verdi의 "Don Carlo"에서는 Don Carlo역으로 출연하여 성공적인 공연을 했다.

특히 3월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했던 G. Bizet의 "Carmen"은 모든 관객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으며 성공적인 연주를 했다.

현재 이용훈 교수님은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G. Puccini의 오페라 "Turandot"에 Calaf역으로 활동 중이다.

작곡과 Department of Composition

[작곡 전공 Composition Major]

이돈응 교수

“국악기 음원 디지털 소스화 및 앱 개발 프로젝트”를 최종 완료

Prof. Donoung Lee, finalized "Digitalization of Sound Source of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and Application Development Project"

3월, “인간연주기법을 구사하는 어쿠스틱 악기연주 로봇과 콘텐츠 생성기술 개발”을 1차년도 완료하였다. 또한 5월에는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악기 음원 디지털 소스화 및 앱 개발 프로젝트”를 최종 완료하였다.

이신우 교수

“2015년 대관령 국제음악제, Distinguished Artists Series IV”에서 「Landscape for 2 violins and viola」 세계초연

Prof. Shinuh Lee, premiered "Landscape for 2 violins and viola" in "Distinguished Artists Series IV" at 2015 Great Mountains Music Festival and School.

7월 25일, “2015년 대관령 국제음악제, Distinguished Artists Series IV”에서 「Landscape for 2 violins and viola」가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세계 초연 되었다.

Roland Breitenfeld 교수

“수원연극축제”에서 라이브 일렉트로닉 음악극 「슈바르츠발트의 왕자(Der Königssohn vom Schwarzwald)」 초연

Prof. Roland Breitenfeld, premiered a live electronic Musikdrama "Der Königssohn vom Schwarzwald" at 2015 Suwon Theatre Festival.

5월 2일, 수원 광고 호수공원 마당극장에서 열린 “수원연극축제”에서 수원·프라이부르크 자매도시 결연을 기념하여 위촉받은 라이브 일렉트로닉 음악극 「슈바르츠발트의 왕자(Der Königssohn vom Schwarzwald)」가 초연되었다.

[지휘 전공 Conducting Major]

임헌정 교수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지휘하여 ‘국악관현악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호평받음

Prof. Hun-jung Lim, conducted National Orchestra of Korea in the Main Hall "Hae" at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and was acclaimed as a "new attempt for Korean Orchestra"

4월 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2015 교향악축제”에서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여 김택수의 「Spin Flip」(세계 초연)과 슈만의 「첼로 협주곡 a단조, Op. 129」(첼로-문태국),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5번 e단조, Op. 64」를 연주하였으며 4월 9일 강원도 원주시 치악예술관에서 원주시립교향악단을 지휘한 “원주시립교향악단 제99회 정기연주회-마에스트로 임헌정 초청연주회”에서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 61」(바이올린-백주영)과 「교향곡 제5번 C단조, Op. 67」 ‘운명’을 연주하였다. 4월 17일에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임헌정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이라는 제목의 연주회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지휘하여 강준일의 국악 관현악을 위한 관현악 소묘 「내나라, 금수강산..」, 재독 작곡가 정일련의 「天-Heaven」(위촉 초연), 파트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Fratres」(바이올린-백주영),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을 연주하였으며 ‘국악관현악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큰 화제를 모았다. 5월 1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SAC GREAT COMPOSER SERIES Bruckner 2014-2016”의 세 번째 무대에서, 이번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 사이클을 함께 하고 있는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브루크너의 「교향곡 제3번 d단조, WAB 103」과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전주곡과 사랑의 죽음을 연주하였다. 또한 8월 2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코리아 심포니 기획 시리즈-파우스트 Goethe & Liszt”에서 테너 강요셉의 협연과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의 해설과 함께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정결한 집」과 리스트의 「파우스트 교향곡」을 국립합창단과 안양시립합창단,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여 연주하였다.

[이론 전공 Music Theory Major]

이석원 교수

국제음악학회(IMS) 20인의 논문심사인단 위원으로 위촉

Prof. Yi, Suk-Won, has been appointed as one of twenty peer reviewers of International Musicological Society.

5년마다 열리는 국제음악학회(International Musicological Society)의 제 20차 총회 및 학술대회(2017년 3월 19~23일)를 위한 20명의 논문심사인단(Program Committee)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울산과학기술대(UNIST)의 초청을 받아 “Does music change your brain?”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고, 5월에는 제54차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Korean Society for Music Perception and Cognition)에서 “음악과 인간심리 : 탐구의 발자취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오희숙 교수

2015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 [Contemporary Music in East Asia] 책임편집

<Contemporary Music in East Asia> written by Prof. Oh, Hee-Sook, has been selected as an outstanding scholarly books by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저서 [Contemporary Music in East Asia](책임편집, 서울대 출판문화원)가 2015 대한민국학술원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었고, [동아시아의 현대음악](책임편집, 음악세계)을 발간하였다. 또한 논문 “음악적 시간상의 변화에 대한 미학적 연구”(음악과 민족 vol.49)를 발표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서양음악연구소 토대연구 학술세미나 “한국을 듣다”를 진행하였다.

기악과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피아노 전공 Piano Major]

최희연 교수

원주 연세콘서트에 초청되어 연주

Prof. Hie-Yeon Choi, was invited and performed at 2015 Spring Yonsei Concert Series in Wonju.

4월 7일 화요일 연세콘서트에 초청되어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대학교회에서 독주회를 가졌다. 4월 20일에는 Ouachita Baptist University의 Mabee Fine Arts Center에 있는 McBeth Recital Hall에 초청되어 베토벤 소나타 프로그램으로 독주회를 하였다. 5월 16일에는 스승이신 고종원 교수님과 아트엠 콘서트에 초청되어 유중아트홀에서 듀오 연주를 하였고, 6월 24일에는 분단 70돌을 맞아 특별히 제작된 한국방송1의 <더 콘서트>에서 연주하였다.

Ian Hobson 교수

한국에서 교육자, 피아니스트와 마에스트로서 자리매김

Prof. Ian Hobson, established his position as an educator, pianist and maestro in Korea.

2015년 서울대 음대에 부임한 Ian Hobson 교수는 5월 13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주시립교향악단의 제 205회 정기연주회에서 피아노 연주와 함께 '마에스트로'로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였고, 6월 4일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초청 리사이틀을 개최하였다. 한국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3월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Iowa Piano Competition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장형준 교수

프랑스 에피날 국제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위촉

Prof. Hyung-Jun Jang, appointed as a judge for Epinal International Piano Concour.

장형준 교수는 2015년 3월 20일 부터 29일까지 프랑스 에피날에서 개최된 제 25회 에피날 국제콩쿠르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박종화 교수

새 앨범 "NUNAYA" 발표

Prof. Jong-Hwa Park, released a new album "NUNAYA"

박종화 교수는 1월 1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2015 신년음악회'에서 지휘자 이경구의 지휘로 인천시립교향악단과 함께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 E♭ 장조, Op. 36번」을 연주하였다.

3월 27일에는 부산문화회관에서 '건반 위의 이야기' 시리즈 중 첫 번째 무대를 열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6월 19일, 8월 4일, 12월 11일 등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5월 14일에는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지휘자 성시연 지휘로 경기필하모닉 교향악단과 함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C단조, Op. 18번」을 연주하였다.

5월 26일에는 유니버설뮤직을 통해 새 앨범인 'NUNAYA:누나야'를 디지털로 선발매 하였다. 이 앨범은 고향의 봄, 산토끼, 엄마야 누나야, 꽃밭에서, 과수원길, 아리랑, 새야새야 파랑새야와 같은 우리나라의 동요와 민요를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하여 수록하였다.

피지컬 앨범은 8월에 발매될 예정이며, 9월 20일 서울 LG아트센터로 시작으로 9월 24일 예울마루 대극장, 9월 30일 김포아트홀, 10월 1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들로 구성된 콘서트가 이어진다.

6월 24일에는 명동성당 마리아홀에서 새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연주하였다. 7월 3일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정치용 지휘자의 지휘로 KBS교향악단과 함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 3번 A단조, Op. 30번」을 연주하였다.

최은식 교수

Just Vivace Festival (저스트 비바체 페스티벌) 참여 및 예술 감독

Prof. Ensik Choi, participated in the Just Vivace Festival as an art director.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 '저스트 비바체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백주영, 권혁주를 비롯해 국내 최고연주자들과 함께 연주하였고, 예술 감독으로서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 4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 서울스프링페스티벌에 참여하여,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첼리스트 조영창 외 많은 국제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연주하였다. 5월 30일에는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이 주최하는 그린콘서트에 연주자로 참여하여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첼리스트 주연선 외 국내최정상급의 연주자들과 함께 Mendelssohn Octet을 성공적으로 연주하였다. 또한 4월 달에 서울대학교병원음악회에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 성공적인 연주로 보답하였다.

이경선 교수

프랑스 파리 Saint-Merry 교회, 스트라스부르그 음악원에서 초청 연주

Prof. Kyung Sun Lee, was invited as a guest performer from Saint-Merry Church in Paris and Strasbourg Conservatoire, France.

프랑스 파리에서 3월 8일 Saint-Merry 교회에서 베토벤의 「피아노3중 협주곡 Op. 56」의 연주가 있었으며 12일에는 스트라스부르그 음악원의 초청으로 독주회가 개최되었다. 베토벤의 작품으로 시작하여 프랑스 작곡가인 드뷔시와 라벨의 「바이올린과 소나타」로 성황리에 연주를 하였으며 스트라스부르그 음악원 학생들과 마스터 클래스 또한 진행하였다. 4월 12일에는 <2015 교향악축제>에 초청되어 춘천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시벨리우스 협주곡을 협연하였으며 4월 25일에는 '이경선과 친구들'을 두 번째로 맞이하여 피아니스트 Aviram Reichert,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비올리스트 이한나, 첼리스트 김호정과 함께 야나체의 「현악4중주 '크로이저 소나타」와 베토벤 「소나타 9번 '크로이저」 그리고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하여 호평을 받았다.

4월 30일에는 SNU비르투오지와 '강석희와 함께하는 현대음악제'를 위해 헨델-할보센, 멘델스존, 강석희의 작품으로 연주하였고 5월 20일에는 첼리스트 양성원과 명동대성당 대성전에서 함께 연주하였으며 5월 30일에는 M4one 챔버앙상블과 '그린 콘서트'를 위해 아렌스키, 멘델스존 작품을 연주하였으며 6월 7일에는 위솔로이스츠 정기연주회를 리드함으로서 호평을 받았다.

백주영 교수

폴란드 제 19회 베토벤 페스티벌에서 바로크 합주단과 협연 및 핀란드 낭탈리 페스티벌 초청 공연

Prof. Ju-Young Baek, performed as a soloist with a baroque ensemble in the 19th Beethoven Festival in Poland, and was invited as a guest performer in the Naantali Music Festival in Finland.

3월 6일 예술의 전당 BK홀에서 열린 OPUS앙상블 정기연주회에서 류재준의 「클라리넷과 현악을 위한 오중주」(세계 초연) 그리고 슈베르트의 「현악 오중주 C장조」를 연주하였다. 3월 20일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서울 바로크 합주단과 K.A. Hartmann 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 하였으며 연이어 폴란드 제 19회 베토벤 페스티벌에서 3월 25일 Warsaw의 National Philharmonic Hall, 3월 27일 Zabrze의 Concert Hall 에서 바로크 합주단과 협연하여 현지에서 호평을 받았다. 4월 9일과 17일에 임현정 교수님의 지휘로 각각 원주시립 교향악단과 베토벤 협주곡을, 국악관현악단과 아르보 페르트의 「Fratres」를 협연하였고, 5월 1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피아니스트 랄프 고토니와의 독주회로 음악 평론계의 큰 호평을 얻었다.

제주도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5월 28일 클래식 앙상블과 피아졸라의 「사계」를 연주하였으며 6월 3일부터 13일까지 핀란드 낭탈리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실내악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관악 전공 Wind Major]

김영률 교수

금관 5중주 온드림 앙상블을 지도하여 이들과 함께 2015년 2월 3일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호른을 연주

Prof. Young-Yul Kim, instructed a brass quintet 'Ondream Ensemble' and played the horn in their second concert held on February 3rd, 2015 in the IBK Chamber Hall of the Seoul Arts Center.

김영률 교수는 금관 5중주 온드림 앙상블을 지도하여 이들과 함께 2015년 2월 3일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호른을 연주하였다. 3월 28일 KT 챔버홀에서 주희성 교수의 피아노와 김응수 교수의 바이올린, 김영률 교수의 호른으로 Lenox Berkeley의 「Trio for Horn, Violin & Piano」를 연주하였다.

3월 29일 용인 포은 아트홀에서 이택주 지휘의 코리아 콰 오케스트라와 함께 마티네 콘서트로 모차르트의 「Horn concerto No.3」을 협연하였다.

4월 16일 예술계 복합연구동 개관기념 연주회에서 모차르트의 Maurice Bourgue의 오보에와 함께 「Serenade C단조」를 연주하였다. 4월 30일에는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김해 앙상블의 정기 연주회 중 모차르트의 「Horn Concerto」를 협연하였다.

5월 12일에는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아울로스 목관 5중주 30회 정기 연주회를 열고 Anton Reicha, 류재준, Joseph Rheinburger의 곡을 연주하였다. 5월 22일에는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앞 광장에서 열린 SNU Wind Ensemble의 정오 음악회에서 지휘를 했다. 5월 30일에는 서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가족 합창제에서 서울대 교수합창단의 지휘를 하였다. 6월 6일에는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열린 서울 호른 클럽 6월 콘서트의 지휘를 맡아 연주하였다. 6월 25일에는 을지로 페럼타워 대강당에서 신한생명 본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Breathing in Orchestra"라는 제목으로 연주 및 강의를 하였다.

최경환 교수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최경환 교수가 이끄는 타악앙상블 <4plus>의 제 21회 정기연주회 개최

Prof. Kyung-Hwan Choi, held the 21st concert of the percussion ensemble <4plus> in the Recital Hall of the Seoul Arts Center.

5월 26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문화가 있는 날 연주 시리즈>의 일환으로 광명 로데오거리 특설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타악기 앙상블 4plus를 이끌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5월 29일에는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SNU Symphonic Band 정기연주회의 지휘를 맡아 많은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음악회를 선사하였다. 7월 18일에는 최경환 교수가 이끄는 타악앙상블 <4plus>의 제 21회 정기연주회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개최하였다. 특별히 Steve Reich의 「Drumming」을 중심으로 한 이번 음악회는 많은 타악 애호가 및 관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윤혜리 교수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플루트 객원 수석 역할을 맡아 베틀린 루세브의 스페인 교향곡 연주

Prof. Hyeri Yoon, performed in the concert 'Svetlin's Spain Symphony' as a guest principal flute of the SPO,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in the Concert Hall of the Seoul Arts Center.

2015년 3월 17일에 열린 제204회 전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서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1번 Ca.」(Wolfgang Amadeus Mozart, Flute Concerto No.1 in G Major KV.313)를 협연하였다. 그리고 3월 19일에서도 춘천시립교향악단과 같은 곡으로 협연하였다. 4월 28일에는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열린 2015 스프링 실내악 페스티벌 연주를 유영욱 Ian Yungwook Yoo (Pi), 이윤정 Yun-Jung Lee (Ob), 채재일 Jerry Jae-il Chae (Cl), 이민호 Min-Ho Lee (Bn), 에르베 줄랭 Hervé Joulain (Hn) 이상 5명 함께 폴랑크의 「피아노와 관악5중주를 위한 6중주, FP 100」(F. Poulenc / Sextet for Piano and Wind Quintet, FP 100)을 연주 하였다. 5월 15일에는 제30회 아울로스 정기연주회를 Oboe / Ingo Goritzki (Clarinet), 이창수(Horn), 김영률(Bassoon), 표규선(객원, Piano), 박은식 이상 5명과 함께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목관 5중주 연주를 하였다. 이어 21일에는 충남시립교향악단과 J. Ibert의 「Concerto for Flute and orchestra」를 협연하였다. 마지막으로 6월 10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스페인 루세브의 스페인 교향곡 연주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플루트 객원 수석 역할을 맡아 연주하였다.

임재원 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에서 주관하는 은퇴설계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한국음악의 이해> 특강

Prof. Lim, Jae-Won, lectured <Understanding Korean Music> in the Retirement Planner Education Program hosted by the College of Human Ecology, SNU

4월 4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에서 주관하는 은퇴설계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한국음악의 이해> 특강을 하였다. 4월 8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정농악회 전통음악연주회에서 관악합주곡인 「동동」 「수제천」과 가곡 다섯 수를 연주하였다. 5월 14일 관악구와 서울대 사범대학교가 주관하는 관악시인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에서 <한국음악의 이해> 특강을 하였다.

이지영 교수

'2015 가야금 비파를 만나다' 연주회 개최

Prof. Yi, Ji-young, hosted a concert '2015 Gayageum meets Biwa (Chinese Mandolin)'

3월 14일 민속극장 '풍류'에서 세계적인 비파연주가인 Lin Hui Kwan과 함께 가야금과 비파 이인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 연주회에서 가야금과 비파의 전통음악을 비롯하여 이중주 4곡을 초연하였다. 또한 5월 15일 성남시립 국악단 특별기획공연에서 본인이 구성한 새로운 산조 「허튼가락」을 성남시립국악단과 초연 협연하였다.

김경아 교수

2학년 관악합주와 부전공 악기지도

Prof. Kim, Kyung-a taught Minor-Instrument class and Sophomore Wind Ensemble.

2학년 관악전공 1학기 동안 수업 한 내용 중 「표정만방지곡」을 6월 12일 콘서트홀 무대에 올려 수업 내용을 체득하도록 했다. 그리고 피리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계 태평소 연주법 특강을 진행했으며, 태평소 악기와 음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3월 6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중요무형문화재 제 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존회 공개행사에서 「상령산」 독주, 6월 6일 KBS 방송에서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보허자」 독주를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연주형태에 대한 시정각 교육을 했다.

정대석 교수

터키 Symphony Orchestra of Eskisehir과의 협연

Prof. Jeong, Dae-Seok, performed as a soloist with the Symphony Orchestra of Eskisehir, Turkey.

정대석 교수는 지난 5월 22일 터키 에스키셰히르 광역시 문화궁전에서 열린 한국-터키 친선 음악회에서 터키 에스키셰히르 시립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하였다. 그는 국악 협주곡으로 작곡한 「수리재」를 편곡하여 터키 현지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여 한국음악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친 정대석 교수는 4월 16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정대석류 거문고 산조」를 연주하였으며, 5월 28일에는 자신이 속한 서울악회에서 「오운개서조」를 연주하였다. 국내외의 활발한 연주활동 외에도 정대석 교수는 학생들의 지도에 힘을 쏟고 있다. 6월 2일 콘서트홀에서 그는 자신의 산조 창작연주 수업을 듣는 재학생들을 지도하여 「젊은가락, 흐트러지다」를 무대에 올리기도 하였다.

김우진 교수

동양음악연구소 학술총서1, 「거문고 육보의 통시적 고찰」 출판

Prof. Kim, Woojin, published 'Diachronic Contemplation on Geomungo Notation', Eastern Music Research Institute Academic Series Vol.1

2월 9일 동양음악연구소 학술총서 제1권 <거문고 육보의 통시적 고찰> (민속원)을 출판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대학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교수협의회 이사와 동양음악연구소장을 각각 2년째 역임하고 있다. 한편 김우진 교수는 2월 14일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관 연주홀에서 열린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학술세미나 및 5월 30일 혜화아트홀에서 열린 제15회 한국음악사학회 음악학술대회 <만당 이해구 음악학의 학술적 재조명> 이상 두 차례 학술대회의 좌장을 맡아 국악학계의 학술적 성과를 살펴본 바 있다.

양경숙 교수

국립국악원서 <양경숙의 해금> 독주회 열어

Prof. Kyung Sook Yang, had a solo recital <양경숙's Haegum> at the National Gugak Center.

4월 12일 <양경숙의 해금>연주회가 국립 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렸다. 이 공연에서는 양경숙 교수가 그간 연구해 온 「취타계주」 「문정 염불풍류」 「서용석류 해금산조」가 연주되었다. 한편 양경숙 교수는 서울대 해금 전공 학부생들의 발전을 위해 매년 해금 정기연주회를 이끌고 있으며, 지난 3월 31일 콘서트홀에서 정기연주회 <두 줄에 물드는 해금>을 개최한 바 있다.

과별엠티 소개 작곡과 11년 만의 총 엠티



지난 3월 27일, 경기도 양주로 작곡과 총 엠티를 다녀왔다.

이번 총 엠티는 작곡과 작곡전공과 이론전공으로 나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다 같이 참석하는 자리였기에 어느 해보다 더욱 뜻 깊었다. 학생들은 물론 교수님들조차 작곡과 전체가 모인다는 소식에 놀라셨을 정도로 부푼 마음과 기대를 안고 우리 모두는 양주아트시티로 향했다.

서로 간의 어색한 사이를 풀기 위하여 첫 일정은 조별 미니게임으로 시작되었다. 작곡전공과 이론전공의 조교님들이 일일MC가 되어 그 진행을 맡았다.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 스피드 퀴즈, 음대 퀴즈 총 3가지로 진행되었다. 단순 노래나 가수를 맞추는 것 이외에도 '제시된 교수님들의 나이가 많은 순부터 나열하시오', '다음 나오는 파일에 속해있는 음악을 맞추시오' 등 학과 교수님뿐만 아니라 음악에 관하여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게임이었다. 게임 직후 모두가 참여하는 저녁 식사시간이 다가왔다. 교수님과 학생 모두가 어우러져 준비해 온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그간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오후 게임을 통해 얻은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대망의 "S-POP STAR" 조별 경연대회가 펼쳐졌다. 교수님들이 스케치북에 자신의 점수를 적어 조별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음악성과 개그감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한 종합평가와 교수님들의 재미난 심사평으로 성공적인 첫 경연대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후 학과장 이신우 교수님의 축하사와 함께 전체 축하주로 이 날을 기념하며 전체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전체 행사 후 각 전공별로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과밤'도 잊지 않았다. '과밤'에서는 새내기들의 장기자랑을 비롯해 학교 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학우들의 새로운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다과와 함께 어느 이야기이던 풀어낼 수 있는 '과밤'을 기다리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작곡과 모두가 함께하는 이번 총 엠티는 참가자들의 성원 속에서 성황리에 끝이 났다. 바야흐로 현대는 세분화와 더불어 융·통합의 시대가 아니던가. 다른 전공이지만 같은 학과로서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각자의 전공을 보다 깊이 있게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총 엠티를 통하여 그 첫 걸음이 한 발짝 떼어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산하(작곡과 이론전공 3학년)



Department MT_ San-ha Lee, Department of Music Composition

On last March 27th, the Department of Music Composition had a MT at Yangju, Gyeonggi-do Province. This MT was the first united MT where people from both majors gathered together in 11 years, since the two major divided, and thus was more significant than the MTs of previous years.

2015학년도 1학기 주요행사

Main events of 2015 1st Semester

국악과

- 2월 23~27일 : 2015 동계음악캠프
- 3월 6일 : 신입생 환영연주회
- 3월 11일 : '린후이관' 비파특강
- 3월 25일 : 신입생연주회
- 4월 29일 : 봄정기연주회
- 5월 매주 수요일 박물관 연주회
- 5월 16일 : 15학번 가야금 신입생 연주회
- 5월 29일 : 정악합주 종강연주회
- 6월 3일 : 박사과정 레쳐콘서트
- 6월 12일 : 관악합주 종강연주회
- 6월 15~26일 : 국악과 여름특강

기악과

[피아노 전공]

- 5월 20일 : Paul Barnes 피아노 마스터클래스
- 5월 27일 : Eugene & Elisabeth Pridonoff 리사이틀
- 5월 27일 : Gilead Mishory 피아노 마스터클래스
- 4월 6일 : 베토벤 협주곡 2번 정기연주회 피아노 석사 박연민 협연
- 4월 29일 : 베토벤 협주곡 1번 정기연주회 피아노 학사 3학년 손아진 협연
- 5월 13일 : 베토벤 트리플 협주곡 피아노 석사 노한솔 협연
- 5월 1일 : James Giles 피아노 마스터클래스
- 5월 8일 : Andreas Staier 피아노 마스터클래스
- 5월 22일 : Ronan O'hara 피아노 마스터클래스
- 5월 25~29일 : 한가야 피아노 마스터클래스
- 6월 5일 : Alexander Korsantia 피아노 마스터클래스

[현악 전공]

- 3월 18일 : Prof. Tatiana Samouil Violin Master Class
- 3월 19일 : Prof. Alexandre Bouzlov Cello Master Class
- 4월 6일, 7일 : Prof. Veit Hertenstein Viola Master Class
- 5월 22일 : SNU String Ensemble 공연

[관악 전공]

- 2월 26일 : 제69회 서울대학교 학위수여식 연주
- 2월 27일 : 서울대학교 교수 정년퇴임식 연주
- 3월 2일 : 2015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식 연주
- 3월 10일 : Willam dowdall Flute Master Class
- 3월 16일 : Roh Shorr Flute Master Class
- 3월 17일~4월 17일
세계적인 오보이스트 Maurice Bourgue 초청
세미나 및 마스트클래스
- 3월 26일 : Andrew Bains Horn Master Class
- 3월 28일 : Ron Selka Clarinet Master Class
- 4월 7일 : 김창국 Flute Master Class
- 4월 9일 : 임상우 Clarinet Master Class
- 4월 20일 : Nick Woud Percussion Master Class
- 5월 22일 : SNU Wind Ensemble Noon Concert(지휘 : 김영률)
- 5월 29일 : SNU Symphonic Band 정기연주회(지휘 : 최경환)
- 6월 25일 : 서울대학교 발전공로상 수여식 축하연주
- 6월 30일 : 서울대학교 직원 정년퇴임식 연주

2015학년도 2학기 주요행사

Main events of 2015 2nd Semester

국악과

- 9월 12일 : 동양음악연구소 가을학술대회
- 10월 30일 : 제57회 국악정기연주회
- 11월 중 국악과 교수음악회
- 11월 중 국악과 '협연의밤'

작곡과

- 10월 7일 : STUDIO2021 Masters Series : Byung-Dong Paik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예술감독 : 최우정
영상감독 : 유후용
연주 : Ensemble TIMF
- 10월 12일 : Guest Composer's Lecture : Sven-David Sandström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 10월 12일 : Performers Studio: Ensemble 2021 창단연주회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예술감독: 최희연, 윤혜리
연주 : Ensemble 2021
- 10월 16일 : Performers Studio : STUDIO2021 with SNU Wind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플룻 : 윤혜리
클라리넷 : Romain Guyot
피아노 : 전지훈
SNU Wind Orchestra(지휘 : 최경환)

기악과

- [피아노 전공]
- 9월 3일 ~ 9월 10일 : 한가야 선생님 2차 특강
- 10월 2일 : Cheng Gang Yang
(중국, 사천음악원 Sichuan Conservatory 교수)
- 10월 16일 : Ory Shihor(미국 Coulburn 음대 교수)
- 2016년 2월 15 ~ 19일 : 2016 International Piano Academy

[관악 전공]

- 9월 6일 : 2015 SNU Wind Ensemble Concert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 김영률 / 협연 : Luxembourg Horn Quartet
- 11월 27일 : SNU Symphonic Band 초청 연주회
김포아트센터
지휘 : 최경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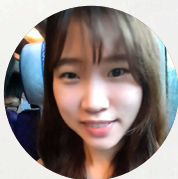
성악과

- 10월 22일 ~ 10월 24일 : 정기오페라 마술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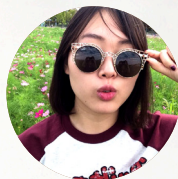
편집위원
한마디~



음악대학 소식을 안다미로 담다.
[안다미로: 순채널로, "많은 것이 곁에 넘쳐도록 많이"라는 비사]
- 기영



마지막 소식지!
동원들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소식지 화이팅!
- 재윤



애정감과 정성이 담긴
나의 첫 소식지!
- 지영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첫 소식지.
- 수옥



다가오는 가을만큼
풍성한 소식지의 결실
- 태연



음악대학 소식 제16호 | 2015년 9월 발행

발행인 _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김귀현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_ 김규동 기획홍보실장(작곡과 교수)

편집위원 _ 하가영 기획홍보실 조교

이재윤 작곡과 이론전공

심지영 작곡과 이론전공

이수옥 국악과 해금전공

유태연 기악과 피아노전공

영문 _ 스노버 고운 작곡과 이론전공

사진 _ 249 스튜디오

디자인 _ (주)다모아피앤디 02 . 466 . 7165

인쇄 _ (주)다모아피앤디 02 . 466 . 7165

College of Music Magazine Vol. 16

Publisher _ Prof. Kwi-Hyun Kim, Dean of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Editorial Committee

Editor _ Prof. Gyoo-Dong Kim,

Department of Composition, Chair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PR

Editorial Board _ Ka-Young Ha, Officer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PR

Jae-Yoon Lee, BA course in Musicology

Ji-Young Sim, BA course in Musicology

Su-Ok Lee, BA course in Korean traditional Music

Tae-Yeon Yoo, BA course in piano

English _ Go-Woon Kim, Shover BA course in Musicology

Photo _ 249 Studio

Design _ DAMOA p&d 02 . 466 . 7165

Printing _ DAMOA p&d 02 . 466 . 7165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